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은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엄수정

피부 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 은 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年 11月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건강복지학과 피부비만관리학전공
엄 수 정

인 준 서

엄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피부 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 실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연령은 29세 이하가 23.6%, 30~39세가 24.1%, 40~49세가 25.7%, 50세 이상이 26.6%로 직업을 가진 경우가 65.3%, 전업주부가 34.7%, 학생이 5.4%로 나타났고, 피부미용 지출비용의 경우 20만원 이하가 75.8%, 21만원 이상이 24.2%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습관에서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38.2%, 흡연하지 않는 경우가 93.3%이었으며 평소 운동 빈도의 경우 전체대상자의 75.2%가 운동을 하였으며 비교적 규칙적인 수면 및 식사습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부상태를 분석한 결과 피부유형은 건성(38.5%), 복합성(30.0%), 중성(14.2%), 지성(9.7%), 민감성(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문제점은 주름과 노화(29.3%), 색소침착(25.2%), 수분부족(16.9%), 여드름(10.6%), 넓은 모공(9.9%)예민, 모세혈관확장(4.7%), 피지분비과다(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상태의 주된 영향요인은 스트레스(27.3%), 평소 피부관리 부족(23.6%), 식습관(18.5%), 자외선 노출(13.3%), 유전(9.0%), 수면부족(8.3%)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문피부관리실(32.7%),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1.2%)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젊음유지·노화방지(45.9%) 및 피부고민해결(39.6%)등을 위해 피부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면미용 성형 기술을 위해 피부과(56.1%)와 성형외과(40.5%)를 주로 이용하였고, 안면미용성형을 하는 이유는 젊음유지·노화방지(38.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술 시 레이저(31.4%), 보톡스(21.8%), 필러(13.4%), 박피(6.1%), 흉터제거(3.9%), 지방이식(2.5%), 콜라겐주사(1.4%), 안면거상술(0.7%)순으로 나타났으며, 안면미용성형 결정시 장애요인은 부작용걱정(46.6%)과 비용(35.7%)의 부담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와 안면미용 성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피부관리에서는 외모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p<.01$), 피부관리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다($p<.001$). 한편, 안면미용성형에서는 피부상태가 좋아졌으며($p<.01$) 주의 사람들의 반응에서 긍정적이고($p<.001$),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다($p<.001$).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은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r=0.213$),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r=0.200$), 안면미용성형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r=0.273$),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사이에는 ($r=0.168$)로 상관 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을 통해 향후 미용산업의 성장을 활성화 하는데 방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3

II. 이론적 배경

- 1. 피부관리 4
- 2. 미용성형 9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15
- 2. 설문지 구성 15
-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8
- 4. 통계방법 20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23
- 3.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 26
- 4.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실태 39
- 5.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 실태 54
- 6.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만족도 72
- 7.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 만족도 73

8.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 만족도 상관관계	74
V. 고찰	76
VI. 결론 및 요약	8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설문지 구성	17
〈표 2〉 연구개념의 개념 타당도	18
〈표 3〉 연구개념의 신뢰도	19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 5〉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24
〈표 6〉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분포	25
〈표 7〉 조사대상자의 피부유형	27
〈표 8〉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	29
〈표 9〉 조사대상자의 고민하는 피부 문제점	31
〈표 10〉 조사대상자의 피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34
〈표 11〉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에 대한 주된 영향요인	36
〈표 12〉 조사대상자의 피부문제점 개선 의향	38
〈표 13〉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피부관리 장소	41
〈표 14〉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43
〈표 15〉 조사대상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피부유형	45
〈표 16〉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에 관한 정보출처	47
〈표 17〉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 장소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49
〈표 18〉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 결정 시 장애가 되는 요인	52
〈표 19〉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안면미용성형 장소	55
〈표 20〉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을 선호하는 이유	58
〈표 21〉 조사대상자가 시술한 안면미용성형의 종류	61
〈표 22〉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에 관한 정보출처	64
〈표 23〉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 장소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67
〈표 24〉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 결정 시 장애가 되는 요인	70
〈표 25〉 피부관리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2

<표 26> 안면미용성형 만족요인이 안면미용성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3
<표 27>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 상관관계 7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대인관계에 있어서 외모는 대인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매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외모에 대한 정보는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일종의 자기 관리이자, 자아존중감의 요인으로 인식된다(박현정, 2010).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이 비교적 강한 것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전양진, 2013).

통계청(2013)이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은 2000년 48.8%에서 2010년 49.4%, 2012년 49.9%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외모와 자기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주영, 2012).

또한 국제 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성형시장규모는 200억 달러(21조원)정도인데 우리나라 성형시장은 45달러(5조원)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엄미선, 2013).

한편 여성의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 형태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김명숙, 2010), 현대여성들은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미용기와 도구를 사용하거나, 앰플, 에센스, 크림, 마스크와 같은 피부관리 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여성들은 피부에 관한 개념 및 지식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피부관리의 올바른 관리법과 미용효과에 대한 평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미용성형은 특성상 단순한 외모의 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적, 정서적 손상을 동시에 교정하여 정신적 만족감을 갖도록 하므로 사회생활에 있어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김은경, 2011). 특히, 얼굴 매력이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후광효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신체 부위 중에서도 얼굴은 미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강근영, 2011). 따라서 안면미용성형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안면미용성형을 통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노력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는 계기가 된다(김형태, 2010).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자신감 향상 및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관리를 하고 있다.

성인여성에 대한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세영 등(2012)은 피부관리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였고, 김현주(2011)는 피부관리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오수정과 강수경(2010)은 대학생의 피부유형과 피부관리태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엄미선(2013)은 미용성형기술 실태에 대해, 김화숙(2011)은 미용성형 수술에 관한 인식 및 관심, 조경원(2010)의 연구에서는 미용성형 환자들의 병원 선택요인과 서비스 받은 후의 만족도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과의 상호연관성 및 소비자의 의식변화의 추세에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 및 소비자행동의식 및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만족도 검사를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 실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대하여 분석한다.
- 3)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 4)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 실태를 분석한다.
- 5)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 만족도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피부관리

1) 피부관리의 개요

피부는 신체의 건강, 호르몬의 분비, 내장기관 등의 내적인 요소와 계절, 기후, 환경 등의 외적인 요소로 인하여 건조현상, 주름생성, 색소침착, 트러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피부관리라고 말한다(김남연, 2010).

피부관리는 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수술 등과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것으로(최재민, 2012), 손을 이용한 관리, 과학적인 기구나 기계사용 및 개인의 피부타입별 전문 화장품 사용, 심리적인 내면 미용법, 식이요법 등이 있다(나현숙 등, 2010).

우리나라에서 피부관리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 피부관리사라는 정규교육이 시작되고 피부미용업이 여성 전문 직종으로 도입되면서 부터이며(가오인, 2012),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피부관리 흐름과 함께 피부관리 각 분야의 운영 시스템의 조직화, 소비자 중심의 요구 부응 노력, 교육적 욕구 상승 등 국내 시장 기반이 한층 성숙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김금란, 2010)

특히 2008년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분리되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피부관리는 더욱 전문적이고 세분화 되고 있다(정보연, 2010).

피부관리 산업은 갈수록 그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 유지를 위한 피부관리에 국한 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 영양·건강·비만관리 등의 예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강춘구, 2013).

또한 경제적 성장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면서,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과거 특수층에만 국한된 미용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대중화 되어(최재민, 2012), 피부관리 서비스는 피부관리실, 메디컬 피부관리실, 한방 피부관리실, 프렌차이즈형태의 피부관리실, 화장품 브랜드 운영 피부관리실, 스파 피부관리실 등으로 세분화 되고 있다(송민진, 2013).

현재 피부미용 시장은 여성 창업자들의 꾸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11조의 시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업소 수는 약 17,979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세계적으로 뷰티 서비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10).

이처럼 현대인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가 피부관리 산업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피부관리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피부관리의 유형

(1) 수기요법

수기요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무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신체를 만져 피로를 풀거나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는 요법으로(최숙경, 2011). 예로부터 특정 부위에 타박을 입거나 통증을 느낄 때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부드럽게 쓸어주거나 두드리고 누름으로써 통증을 없애곤 하였다(김대옥, 2012). 이러한 수기요법의 종류에는 의료적으로 추나요법, 카이

로프라틱, 지압, 안마, 의료 마사지 등이 있고 스포츠 및 대체의학 쪽으로는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동방활법이 있으며(김여애, 2011), 뷰티테라피에는 경락마사지, 림프마사지, 스웨디쉬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이 있다(최재민, 2012).

피부관리 차원에서는 피부 연조직을 자극하는 손의 움직임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자극으로 인해 혈액 및 림프순환이 빨라지면서 진피 층의 세포활동을 직접적으로 활성화 시켜 노화된 피부의 상피와 기타 분비물 및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 효율적이고(심현실, 2013), 또한 피부 내 필요한 영양과 산소 공급으로 세포 생성을 도와 피로를 풀어주고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여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주며 자율신경계 조절기능과 자연치유력을 높여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이명진, 2013).

이처럼 수기요법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신경계, 근육계, 혈행을 원활히 하여 피부건강은 물론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 질병까지 예방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기기요법

피부미용 기기는 단순히 손과 제품을 이용하는 피부손질보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화장품이 함유하고 있는 활성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더욱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리 방법이다(명은설, 2011).

2000년대 들어서면서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의 발달로 체질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는 차원 높은 관리의 비중이 증가되었다(박하나 등, 2011). 현재 국내에서 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와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고, 의료용 목적이 확실한 기기를 제외하고는 피부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를 공산품으로 분류한다(정보연 등, 2010).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부미용기기는 이온토프레시스(Iontophoresis), 디스인크러스테이션(Disincrustation)을 포함한 이온기기(Galvanic machine), 고주파기(High Frequency current), 초음파기(Ultrasonic machine), 등이 있고, 그 외에 증기분무기(Steamer), 진동브러시(Premato), 진공흡입기(Suction Pump), 스킨스크러버(Skin scrubber), 리프팅기(Lifting machine) 등 있다(이유민, 2011).

기기를 이용한 관리는 안면 색소침착이나 주름 등의 미용상의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피부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관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이명진 등, 2012).

이처럼 피부미용기기는 앞으로도 피부미용산업의 성장과 함께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양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3) 메디컬 스킨케어

메디컬스킨케어는 의학적인 치료와 피부관리가 결합된 것으로 전문의와 피부관리사가 여드름, 색소·혈관성 질환 등의 문제성 피부를 의료기기 또는 피부질환에 적합한 화장품 등을 이용하여 치료 및 관리하는 것으로 치료 후의 피부관리나 피부질환의 예방관리이다(노상은, 2011).

국내 메디컬스킨케어는 1998년 대한 피부과 개원의협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병원에서의 피부미용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의 실시로 미용업무 범위의 확장과 함께 미용치료 후 처치 개념으로 적용되었으며(이소영, 2010), 2000년대 초·중반에 이르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각종 시술방법과 필링장비, 레이저 및 각종장비 등을 동원하여 이전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미용 기술을 위한 공간이 진료 공간보다 더 많아지면서 메디컬 스킨케어의 비중이 확대되었다(김현정, 2010).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는 메디컬 피부관리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드름성 피부, 기미와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 노화피부, 넓은 모공 등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피부 박피술과 재생관리, 미용성형과 재생, 수술 분야에 따른 전 후 관리까지도 적용 대상범위로 보고 있다(이유민, 2011). 최근에는 피부·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도 피부미용을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송민진, 2013), 주로 사용되고 있는 메디컬 스킨케어는 박피, 레이저, 주사요법 등이 있으며, 레이저 치료나 피부 시술 후에 진정, 재생, 미백치료를 같이 실시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윤미진, 2012).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고객의 피부유형과 피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시술법으로 행하는 피부관리로 성장할 전망이다.

2. 미용성형

1) 미용성형의 개요

미용성형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와 노력으로 미용을 위해 병원에서 시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변선주, 2011),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과 골격에 결손 또는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는 물론이고 기능도 개선해 주는 외과의 한 분과이다(정명선, 2010).

최초의 미용성형의 기록은 기원전 6~7세기경 인도의 수수루타(Susruta)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된 코 성형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로 전달되었다(김수현, 2013). 7세기경에는 인도와 아랍의 의술이 서양의 의술과 접목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본격적인 미용성형의 역사는 제 1차 세계대전 초기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의 얼굴이나 신체에 입은 부상을 감추기 위해 시행되었다(유해숙, 2013). 미용성형은 20세기에 들어 항생제 개발과 성형수술 방법의 발전이 증가되면서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렀고 다원적인 성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에 대한 욕구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여실히 반영하듯 미용성형의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허은숙, 2011). 최근 시술되는 미용성형으로는 눈성형, 코성형, 윤곽교정술 등을 포함한 얼굴성형과 박피술, 잡티제거술 등의 피부성형, 그리고 지방흡입술, 가슴 확대술 등을 포함한 체형성형, 또한 필러, 보톡스 등의 주름성형과 액취증 제거술, 부종 제거술 등이 있다(최미혜, 2010).

미용성형으로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삶, 주위 사람들의 태도 변화 등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중독, 성형효과 미미, 성형 역효과 등이 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미용성형 수술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미리 고려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전현진 등, 2010).

미(美)는 만들어 지기도 하며, 또 미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외모나 육체에 대한 불만이나 열등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행하여지기 때문에 미용성형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는 기존의 성형수술 보다 세밀한 미용성형의 진보를 가져왔다(김화숙, 2011).

국제 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세계 성형시장규모는 200억달러(21조원)정도인데 우리나라 성형시장은 45달러(5조원)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엄미선, 2013). 최근 미용성형의 시장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산업화되어 성형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수 뿐만 아니라 성형 관련 기기와 소모품을 제작·수입하는 업체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그 결함을 고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허은숙, 2011). 이처럼 현대인들의 미에 대한 관심과 미용성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앞으로 미용성형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라 사료된다.

2) 미용성형의 유형

(1) 미용성형을 통한 얼굴성형

① 눈

동양인의 50~70%는 쌍꺼풀이 없고 상안검 피부가 처져 있다. 성형수술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쌍꺼풀 수술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수술이다(이윤경, 2005). 쌍꺼풀 수술은 일반화 되고 있으며 매몰법, 부분절개법, 완전절개법, 앞트임, 뒤트임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수술방법도 피부 거상술, 눈위와 밑의 지방 제거술 등으로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김봉인 등, 2012).

② 코

코는 얼굴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으로 눈과 함께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쌍꺼풀 수술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미용성형 중 하나이다(변선주, 2011). 대표적인 코 성형 방법으로는 코끝이나 콧등을 올려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수술과 메부리코, 들창코, 화살코 같은 코모양을 교정해 주는 수술이 있다(이윤경, 2005).

③ 안면윤곽술

안면윤곽술이란 얼굴 뼈 모양을 변형시켜 얼굴형을 바꾸는 수술을 말하며, 수술 방법으로는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 수술, 턱 끝 수술, 무턱 수술, 양악 수술 등이 있다(엄미선, 2013). 특히 사각턱 수술은 가장 대표적인 안면윤곽 성형수술로서 하악골을 절제하여 하안면의 크기를 작게 하여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진훈, 2011), 입아의 절개를 통해 하악각 부위와 귀밑에서 턱선의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수술이다(변선주, 2011)

(2) 미용성형을 통한 피부성형

① 박피술(Peeling)

박피란 특수 약물이나 화학제품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인위적으로 각화시키는 것으로 피부에 특정 매개체를 통해 자극을 주어 피부의 일부를 손상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이용하여 흉터, 색소침착 또는 노화된 피부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김광희, 2013).

박피의 종류로는 TCA, Glycolic acid 등 이용한 화학적 박피술, 크리스탈 가루나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한 물리적 박피술, 레이저를 이용하여 표피의

재생과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레이저 박피술 등이 있으며 깊이의 정도에 따라 얇고 깊은 박피를 할 수 있다(김현정, 2010).

② 레이저(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방사선의 유도 방출에 의한 광증폭으로 생기는 특수한 형태의 광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증폭시켜 원하는 파장의 빛을 원하는 강도로 조사하는 기기로 CO₂ 쿨터치 레이저, 모자이크 레이저, 소프트 레이저, 등이 있다(고정임, 2012). 레이저는 피부 질환 부위에 흡수되어 박피, 통증완화와 피부재생을 위한 레이저빔을 피부에 반복적으로 조사해 색소병변, 혈관병변, 표피제거, 제모 등을 치료한다(엄미선, 2013).

(3) 미용성형을 통한 주름성형

① 보톡스

1981년 처음 미용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의 발효배양에서 생성된 보툴리눔(botulinum)이라는 신경독소를 운동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에 주사하는 것이다(김봉인 등, 2012). 과거에는 주로 신경과나 안과등에서 근육경련이나 눈 처짐 등의 증세가 있을 때 흔히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마나 눈 주위의 주름, 다한증, 사각턱 교정 등에 이용되고 있다(이승현 등, 2004).

② 필러(Filler)

필러란 얼굴의 여러 부위에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조직 결손 부위 또는 미용적으로 부피가 증강될 필요가 있는 부위에 주사를 사용하여 단시간에 시술 하는 방법으로(이소영, 2010). 재료에 따라 지방을 채취해 시술부

위에 주입하는 자가지방이식, 어린 송아지의 피부에서 추출하여 주입하는 콜라겐, 진피에 볼륨을 줄 수 있는 주입물질인 히알루론산 유도체, 합성물질인 고어텍스, 실리콘 등이 있다(최미옥, 2012). 필러는 눈 밑이나 관자놀이, 뺨 등의 골진 주름을 채우는 용도 외에도 이마나 입술을 도톰하게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도 세울 수 있어 일명 ‘쁘띠(petit)성형’ 이라고도 부른다(서구일, 2010).

(4) 미용성형을 통한 체형성형

① 지방흡입

지방흡입술은 신체 일부의 비정상적인 국소적 비만을 혈관이나 신경, 림프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교정하여 신체의 윤곽을 새로이 만들어 주는 방법을 말한다(박소영, 2011).

1960년 독일 Cologne에 Schrudde가 최초로 시행한 방법으로 지방조직을 깎아서 음압으로 빨아내는 원리를 이용했다(변선주, 2011). 그 후 비만부위에 약 1cm의 피부를 절개하고 가는 관을 삽입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근막위에 있는 지방세포만 선택적으로 흡입시켜 내는 방법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흡입을 통한 수술부위는 복부, 허벅지, 종아리, 팔 등에 적용 할 수 있다(최선미, 2011).

② 가슴성형

가슴성형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가슴성형 산업의 규모 역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성형외과학계에 보고된 보형물 소비량은 연간 8,000개 정도이다(이은주, 2011). 가슴성형의 수술 부위별 세부사항으로는 식염수 팩, 실리콘 팩, 지방주입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 확대 수술과

가슴 축소 수술, 처진 가슴을 올려주는 가슴 거상술, 함몰 유두 교정 수술 등이 있다(이민영, 2003).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50대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의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직접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487부를 배부하여 475부를 회수하였고 그중 불성실하게 작성한 31부를 제외한 총 444부를 최종 통계 처리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 1>와 같이 크게 7가지 영역으로 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소득, 피부미용지출비용에 대한 질문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면시간, 음주여부, 흡연여부, 식사횟수, 물섭취량, 운동여부에 대한 질문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대상자의 피부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현주(2011), 이유민(2011), 이혜원(2009), 조화영(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유형, 피부상태, 피부문제점, 피부로 인한 스트레스,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피부문제점 개선 노력에 대한 질문 6문항을 추출하였다.

네 번째는 피부관리 실태에 관한 문항으로는 권혜영(2008), 김은경(2010), 이유임(2011), 최정임(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장소, 피부관리 하는 이유, 가장 중시하는 피부관리 유형, 정보 취득방법, 장소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

항, 피부관리 결정시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는 안면 미용성형 실태에 관한 문항으로 김은경(2010), 김수빈(2008), 김화숙(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장소, 선호 이유, 안면미용성형 시술 종류, 정보 취득 방법,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안면미용성형 결정 시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섯 번째는 피부관리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으로 손현진(2008), 조화영(2011), 정은진(2009), 최정임(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 정도, 외모개선, 피부상태개선, 피부관리 후 주위반응, 피부관리 후 공개여부, 문제점 및 부작용 여부, 피부관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질문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곱 번째는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를 살피기 위하여 김은경(2010)과 김화숙(2010)의 문헌에서 추출하여 지식 정도, 외모개선, 피부상태 개선, 안면미용성형 후 주위반응, 안면미용성형 후 공개여부, 문제점 및 부작용 여부,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질문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설문지 구성

구성내용	설문내용	문항	척도	이론
일반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소득, 피부미용지출비용	6	객관식 주관식	이유민(2011) 조화영(2011)
생활습관	수면시간, 음주여부, 흡연여부, 식사횟수, 물섭취량, 운동여부	6	객관식	이현진(2010) 김수빈(2008) 하문선(2007)
피부상태	피부유형, 피부상태, 피부문제점, 피부로 인한 스트레스,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피부문제점 개선 노력	6	객관식	이유민(2011) 김현주(2011) 조화영(2011) 이혜원(2009)
피부관리 실태	선호하는 장소, 하는 이유, 가장 중시하는 피부관리 유형, 정보 취득방법, 장소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피부관리 결정시 장애요인	6	객관식	이유민(2011) 김은경(2010) 최정임(2009) 권혜영(2008)
안면미용 성형실태	선호하는 장소, 선호 이유, 안면미용성형 시술 종류, 정보 취득 방법, 장소 선택 시 고려사항, 안면미용성형 결정 시 장애요인	6	객관식	김은경(2010) 김화숙(2010) 김수빈(2008)
피부 관리의 만족도	지식 정도, 외모개선, 피부상태개선, 피부관리 후 주위반응, 피부관리 후 공개여부, 문제점 및 부작용 여부, 피부관리에 대한 효과성	7	5점 척도 (Likert)	조화영(2011) 손현진(2008) 정은진(2009) 최정임(2009)
안면미용 성형의 만족도	지식 정도, 외모개선, 피부상태 개선, 안면미용성형 후 주위반응, 안면미용성형 후 공개여부, 문제점 및 부작용 여부,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효과성	7	5점 척도 (Likert)	김은경(2010) 김화숙(2010)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연구개념의 개념타당도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개념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항목에 대해서는 척도 간 상관관계인 요인적재치가 0.4 이하인 항목은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요인의 구분기준은 고유값1 이상을 요인으로 추출되도록 하였고, 요인분석방법은 요인추출단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성분 분석, 직교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2> 연구개념의 개념타당도

	성분	
	1	2
피부관리 후 피부상태 개선	.795	
피부관리 후 타인의 반응	.791	
피부관리 후 외모개선	.768	
피부관리 효과의 신뢰성	.650	
피부관리 지식	.627	
피부관리 한 사실 공개 여부	.580	
안면미용성형 후 외모개선		.836
안면미용성형 후 타인의 반응		.822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		.770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747
안면미용성형 한 사실 공개여부		.493
안면미용성형 지식		.437
고유값	4.137	2.231
설명량	23.403	22.080
누적설명량	23.403	45.483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81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1048.338, df=91, sig=.000***		

각 요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 간에는 <표2>에서와 같이 판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석을 위해 설정된 항목들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분석하는 KMO(Kaiser-Mayer-Olkin)값도 .817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2) 연구개념의 신뢰도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특정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정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수행된다. 즉 동일한 대상에 대해 같거나 비교가능한 측정항목을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측정항목이 측정하려고 하는 속성을 얼마나 잘 측정했는가, 측정에 있어 측정오차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이다.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이용된 측정도구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729~.731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은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개념의 신뢰도

	문항번호	Cronbach's α	항목 수
피부관리	1~7	.731	7
안면미용성형	1~7	.729	7

4. 통계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크론바하 알파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에 대한 실태,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실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인 교차분석과 독립 표본 T-Test와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 영향요인분석을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피부관리의 만족도,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 연구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연령의 경우 29세 이하가 23.6%, 30~39세가 24.1%, 40~49세가 25.7%, 50세 이상이 26.6%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의 경우 대학교졸이 38.2%, 고졸이 27.2%, 전문대학졸이 24.2%, 대학원수료이상이 7.8%, 기타가 2.5%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의 경우 기혼이 63.2%, 미혼이 33.6%, 기타(독신, 이혼 등)이 3.2%로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전업주부가 34.7%, 전문직이 23.1%, 회사원이 16.8%, 자영업이 10.4%, 서비스직이 9.5%, 학생이 5.4%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의 경우 200만원이하가 49.3%, 201~300만원이 28.6%, 301만원이상이 22.1%로 나타났으며, 피부미용 비용의 경우 10만원이하가 47.4%, 11~20만원이 28.4%, 21만원이상이 24.2%로 나타났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105	23.6
	30 - 39세	107	24.1
	40 - 49세	114	25.7
	50세 이상	118	26.6
최종학력	고졸	118	27.2
	전문대학졸	105	24.2
	대학교졸	166	38.2
	대학원수료이상	34	7.8
	기타	11	2.5
결혼여부	미혼	148	33.6
	기혼	278	63.2
	기타 (독신, 이혼 등)	14	3.2
직업	학생	24	5.4
	회사원	74	16.8
	전문직	102	23.1
	서비스직	42	9.5
	자영업	46	10.4
	전업주부	153	34.7
월소득	하(200만원이하)	219	49.3
	중(201-300만원)	127	28.6
	상(301만원이상)	98	22.1
피부미용 비용	10만원이하	210	47.4
	11 - 20만원	126	28.4
	21만원이상	107	24.2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1) 생활습관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음주빈도의 경우 전혀 마시지 않는다가 38.2%, 월 1~2회가 22.6%, 주 1회가 21.5%, 주 2~3회가 10.2%, 주 3~4회가 4.5%, 매일이 1.1%, 주 4~5회가 1.1%, 주 5~6회가 0.7%로 나타났으며, 음주량의 경우 소주 반병 정도가 38.3%, 소주 1~2잔이 36.4%, 소주 한 병 이상이 23.9%, 소주 두병 이상이 1.1%, 흡연량의 경우 흡연하지 않는다가 93.3%, 1일 몇 회 정도가 6.7%로 나타났으며, 흡연기간의 경우 3~5년 미만이 46.4%, 7~10년 미만이 25.0%, 10년 이상이 10.7%, 1~3년 미만이 7.1%, 5~7년 미만이 7.1%, 1년 미만이 3.6%로 나타났으며, 평소 운동 빈도의 경우 주 2~3회가 26.2%, 하지 않는다가 24.8%, 매일이 7.5%, 주 1회가 20.7%, 주 3~4회가 11.4%, 주 4~5회가 4.6%, 월 1~2회가 4.1%, 주 5~6회가 0.7%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 생활습관

	빈도	백분비(%)	
음주빈도	전혀 마시지 않는다	169	38.2%
	매일	5	1.1%
	주 1회	95	21.5%
	주 2~3회	45	10.2%
	주 3~4회	20	4.5%
	주 4~5회	5	1.1%
	주 5~6회	3	0.7%
	월 1~2회	100	22.6%
음주량 (음주자만 응답) (소주 한잔 40ml기준)	소주 1~2잔	96	36.4%
	소주 반병 정도	101	38.3%
	소주 한 병 이상	63	23.9%
	소주 두병 이상	3	1.1%
흡연량(1일기준)	흡연하지 않는다	406	93.3%
	1일 몇 회 정도	29	6.7%
흡연기간(흡연자만 응답)	1년 미만	1	3.6%
	1~3년 미만	2	7.1%
	3~5년 미만	13	46.4%
	5~7년 미만	2	7.1%
	7~10년 미만	7	25.0%
	10년 이상	3	10.7%
평소 운동 빈도	하지 않는다	109	24.8%
	매일	33	7.5%
	주 1회	91	20.7%
	주 2~3회	115	26.2%
	주 3~4회	50	11.4%
	주 4~5회	20	4.6%
	주 5~6회	3	0.7%
	월 1~2회	18	4.1%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분포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의 분포를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1일 평균 수면 시간이 6.40 ± 1.28 시간, 흡연 횟수가 5.11 ± 2.67 회, 하루식사 횟수가 $2.66 \pm .62$ 회, 하루 물 음용량 (200ml 한잔기준)이 5.00 ± 2.44 잔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분포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1일 평균 수면 시간	443	1.00	10.00	6.40	1.28
흡연 횟수	28	2.00	10.00	5.11	2.67
하루식사 횟수	444	1.00	6.00	2.66	.62
하루 물 음용량 (200ml 한잔기준)	443	1.00	15.00	5.00	2.44

3.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

1) 조사대상자의 피부유형

피부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건성(38.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복합성(30.0%), 중성(14.2%), 지성(9.7%), 민감성(7.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29세 이하의 경우 복합성(49.5%), 지성(23.8%), 건성(13.3%) 순으로 나타났고, 30~39세의 경우 건성(38.3%), 복합성(33.6%), 민감성(13.1%), 40~49세의 경우는 건성(50.9%), 복합성(24.6%), 중성(17.5%), 50세 이상의 경우 건성(49.2%), 중성(28.8%), 복합성(14.4%) 순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의 경우 복합성(47.3%), 건성(22.3%), 지성(18.2%), 기혼의 경우 건성(47.1%), 복합성(21.2%), 중성(19.4%)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독신, 이혼 등)의 경우 건성(35.7%), 중성(28.6%), 복합성(21.4%) 순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의 경우 복합성(45.8%), 건성(25.0%), 지성(16.7%), 회사원의 경우 복합성(39.2%), 건성(29.7%), 지성(13.5%), 전문직의 경우 복합성(41.2%), 건성(31.4%), 지성(14.7%)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직의 경우 복합성(33.3%), 건성(31.0%), 중성(16.7%), 자영업의 경우 건성(37.0%), 복합성(28.3%), 중성(15.2%), 전업주부의 경우 건성(52.3%), 중성(23.5%), 복합성(15.7%)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7> 조사대상자의 피부유형

구분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합계		
	(%)	(%)	(%)	(%)	(%)	(%)		
전체	171(38.5)	63(14.2)	43(9.7)	133(30.0)	34(7.7)	444(100)		
연령	29세 이하	14(13.3)	4(3.8)	25(23.8)	52(49.5)	10(9.5)	105(100)	χ ² =123.65, df=12, p=.000***
	30-39세	41(38.3)	5(4.7)	11(10.3)	36(33.6)	14(13.1)	107(100)	
	40-49세	58(50.9)	20(17.5)	3(2.6)	28(24.6)	5(4.4)	114(100)	
	50세 이상	58(49.2)	34(28.8)	4(3.4)	17(14.4)	5(4.2)	118(100)	
최종 학력	고졸	53(44.9)	29(24.6)	8(6.8)	21(17.8)	7(5.9)	118(100)	χ ² =49.48, df=16, p=.000***
	전문대학졸	41(39.0)	16(15.2)	14(13.3)	25(23.8)	9(8.6)	105(100)	
	대학교졸	59(35.5)	13(7.8)	16(9.6)	68(41.0)	10(6.0)	166(100)	
	대학원수료이상	8(23.5)	0(0.0)	4(11.8)	16(47.1)	6(17.6)	34(100)	
기타	3(27.3)	2(18.2)	1(9.1)	3(27.3)	2(18.2)	11(100)		
결혼 여부	미혼	33(22.3)	4(2.7)	27(18.2)	70(47.3)	14(9.5)	148(100)	χ ² =78.38, df=8, p=.001***
	기혼	131(47.1)	54(19.4)	14(5.0)	59(21.2)	20(7.2)	278(100)	
	기타	5(35.7)	4(28.6)	2(14.3)	3(21.4)	0(0.0)	14(100)	
직업	학생	6(25.0)	2(8.3)	4(16.7)	11(45.8)	1(4.2)	24(100)	χ ² =67.17, df=20, p=.000***
	회사원	22(29.7)	4(5.4)	10(13.5)	29(39.2)	9(12.2)	74(100)	
	전문직	32(31.4)	7(6.9)	15(14.7)	42(41.2)	6(5.9)	102(100)	
	서비스직	13(31.0)	7(16.7)	5(11.9)	14(33.3)	3(7.1)	42(100)	
	자영업	17(37.0)	7(15.2)	3(6.5)	13(28.3)	6(13.0)	46(100)	
	전업주부	80(52.3)	36(23.5)	5(3.3)	24(15.7)	8(5.2)	153(100)	
월 소득	200만원이하	84(38.4)	31(14.2)	24(11.0)	65(29.7)	15(6.8)	219(100)	χ ² =6.77, df=8, p=.562
	201-300만원	49(38.6)	14(11.0)	15(11.8)	39(30.7)	10(7.9)	127(100)	
	301만원이상	38(38.8)	18(18.4)	4(4.1)	29(29.6)	9(9.2)	98(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이하	87(41.4)	28(13.3)	20(9.5)	64(30.5)	11(5.2)	210(100)	χ ² =20.73, df=8, p=.008**
	11-20만원	54(42.9)	22(17.5)	9(7.1)	35(27.8)	6(4.8)	126(100)	
	21만원이상	30(28.0)	12(11.2)	14(13.1)	34(31.8)	17(15.9)	107(100)	

** p<0.01, *** p<0.001

2)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

피부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8>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통이다(51.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약간 나쁘다(26.0%), 약간 좋다(16.9%), 매우 나쁘다(2.9%), 매우 좋다(2.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 있어서 29세 이하의 경우 보통이다(40.4%), 약간 나쁘다(39.4%), 약간 좋다(13.5%), 30~39세의 경우 보통이다(48.6%), 약간 나쁘다(30.8%), 약간 좋다(15.9%), 40~49세의 경우 보통이다(59.6%), 약간 나쁘다(19.3%), 약간 좋다(16.7%), 50세 이상의 경우 보통이다(56.8%), 약간 좋다(21.2%), 약간 나쁘다(16.1%) 순으로 나타났다($p < .01$).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미혼의 경우 보통이다(43.5%), 약간 나쁘다(38.8%), 약간 좋다(13.6%), 기혼의 경우 보통이다(55.0%), 약간 나쁘다(19.8%), 약간 좋다(19.4%),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보통이다(64.3%), 약간 나쁘다(14.3%), 매우 좋다(14.3%)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8>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

구분	매우 좋다	약간 좋다	보통 이다	약간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합계		
	(%)	(%)	(%)	(%)	(%)	(%)		
연령	전체	11(2.5)	75(16.9)	229(51.7)	115(26.0)	13(2.9)	443(100)	$\chi^2=32.04,$ df=12, p=.001**
	29세 이하	1(1.0)	14(13.5)	42(40.4)	41(39.4)	6(5.8)	104(100)	
	30-39세	1(0.9)	17(15.9)	52(48.6)	33(30.8)	4(3.7)	107(100)	
	40-49세	3(2.6)	19(16.7)	68(59.6)	22(19.3)	2(1.8)	114(100)	
	50세 이상	6(5.1)	25(21.2)	67(56.8)	19(16.1)	1(0.8)	118(100)	
최종 학력	고졸	7(5.9)	21(17.8)	58(49.2)	29(24.6)	3(2.5)	118(100)	$\chi^2=18.61,$ df=16, p=.289
	전문대학졸	2(1.9)	12(11.4)	61(58.1)	28(26.7)	2(1.9)	105(100)	
	대학교졸	2(1.2)	28(17.0)	78(47.3)	50(30.3)	7(4.2)	165(100)	
	대학원수료이상	0(0.0)	9(26.5)	18(52.9)	6(17.6)	1(2.9)	34(100)	
	기타	0(0.0)	1(9.1)	8(72.7)	2(18.2)	0(0.0)	11(100)	
결혼 여부	미혼	1(0.7)	20(13.6)	64(43.5)	57(38.8)	5(3.4)	147(100)	$\chi^2=30.16,$ df=8, p=.000***
	기혼	8(2.9)	54(19.4)	153(55.0)	55(19.8)	8(2.9)	278(100)	
	기타	2(14.3)	1(7.1)	9(64.3)	2(14.3)	0(0.0)	14(100)	
직업	학생	0(0.0)	3(12.5)	10(41.7)	10(41.7)	1(4.2)	24(100)	$\chi^2=20.43,$ df=20, p=.431
	회사원	1(1.4)	13(17.6)	35(47.3)	24(32.4)	1(1.4)	74(100)	
	전문직	2(2.0)	13(12.9)	50(49.5)	31(30.7)	5(5.0)	101(100)	
	서비스직	1(2.4)	9(21.4)	19(45.2)	12(28.6)	1(2.4)	42(100)	
	자영업	2(4.3)	7(15.2)	23(50.0)	13(28.3)	1(2.2)	46(100)	
	전업주부	5(3.3)	29(19.0)	91(59.5)	24(15.7)	4(2.6)	153(100)	
월 소득	200만원이하	6(2.7)	29(13.2)	113(51.6)	63(28.8)	8(3.7)	219(100)	$\chi^2=7.41,$ df=8, p=.492
	201-300만원	2(1.6)	25(19.8)	63(50.0)	33(26.2)	3(2.4)	126(100)	
	301만원이상	3(3.1)	21(21.4)	53(54.1)	19(19.4)	2(2.0)	98(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이하	3(1.4)	30(14.3)	118(56.2)	50(23.8)	9(4.3)	210(100)	$\chi^2=13.09,$ df=8, p=.108
	11-20만원	5(4.0)	28(22.2)	60(47.6)	33(26.2)	0(0.0)	126(100)	
	21만원이상	3(2.8)	17(16.0)	50(47.2)	32(30.2)	4(3.8)	106(100)	

** p<0.01, *** p<0.001

3) 조사대상자의 고민하는 피부 문제점

피부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전체적으로 주름, 노화(29.3%), 색소침착(25.2%), 수분부족(16.9%), 여드름(10.6%), 넓은 모공(9.9%) 예민, 모세혈관확장(4.7%), 피지분비과다(3.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여드름(35.2%), 수분부족(18.1%), 넓은 모공(15.2%), 30~39세의 경우 수분부족(29.0%), 주름, 노화(21.5%), 넓은 모공(12.1%), 색소침착(12.1%), 40~49세의 경우 색소침착(43.9%), 주름, 노화(36.0%), 수분부족(13.2%), 50세 이상의 경우 주름, 노화(53.4%), 색소침착(31.4%), 수분부족(8.5%)순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여드름(27.0%), 수분부족(20.3%), 넓은 모공(14.2%), 기혼의 경우 주름, 노화(39.6%), 색소침착(30.6%), 수분부족(15.1%),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색소침착(71.4%), 주름, 노화(14.3%), 넓은 모공(7.1%), 수분부족(7.1%)순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여드름(33.3%), 수분부족(25.0%), 색소침착(20.8%), 회사원의 경우 주름, 노화(23.0%), 여드름(21.6%), 색소침착(18.9%), 전문직의 경우 색소침착(20.6%), 수분부족(19.6%), 여드름(17.6%), 넓은 모공(17.6%), 서비스직의 경우 주름, 노화(33.3%), 수분부족(23.8%), 색소침착(16.7%), 자영업의 경우 색소침착(34.8%), 주름, 노화(32.6%), 수분부족(13.0%), 전업주부의 경우 주름, 노화(45.1%), 색소침착(32.0%), 수분부족(15.0%)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9> 조사대상자의 고민하는 피부 문제점

구분	여드름	색소 침착	주름, 노화	피지 분비 과다	수분 부족	예민 모세 혈관 확장	넓은 모공	합계			
	(%)	(%)	(%)	(%)	(%)	(%)	(%)	(%)			
연령	전체	47 (10.6)	112 (25.2)	130 (29.3)	15 (3.4)	75 (16.9)	21 (4.7)	44 (9.9)	444 (100)	$\chi^2=228.85,$ $df=18,$ $p=.000***$	
	29세 이하	37 (35.2)	12 (11.4)	3 (2.9)	9 (8.6)	19 (18.1)	9 (8.6)	16 (15.2)	105 (100)		
	30-39세	10 (9.3)	13 (12.1)	23 (21.5)	6 (5.6)	31 (29.0)	11 (10.3)	13 (12.1)	107 (100)		
	40-49세	0 (0.0)	50 (43.9)	41 (36.0)	0 (0.0)	15 (13.2)	0 (0.0)	8 (7.0)	114 (100)		
	50세 이상	0 (0.0)	37 (31.4)	63 (53.4)	0 (0.0)	10 (8.5)	1 (0.8)	7 (5.9)	118 (100)		
	고졸	12 (10.2)	32 (27.1)	47 (39.8)	2 (1.7)	17 (14.4)	2 (1.7)	6 (5.1)	118 (100)		$\chi^2=45.92,$ $df=24,$ $p=.005**$
	전문대학졸	12 (11.4)	29 (27.6)	32 (30.5)	6 (5.7)	10 (9.5)	4 (3.8)	12 (11.4)	105 (100)		
	대학교졸	19 (11.4)	40 (24.1)	40 (24.1)	5 (3.0)	37 (22.3)	11 (6.6)	14 (8.4)	166 (100)		
대학원 수료 이상	4 (11.8)	4 (11.8)	4 (11.8)	2 (5.9)	8 (23.5)	4 (11.8)	8 (23.5)	34 (100)			
기타	0 (0.0)	3 (27.3)	3 (27.3)	0 (0.0)	2 (18.2)	0 (0.0)	3 (27.3)	11 (100)			
결혼 여부	미혼	40 (27.0)	17 (11.5)	16 (10.8)	9 (6.1)	30 (20.3)	15 (10.1)	21 (14.2)	148 (100)	$\chi^2=134.90,$ $df=12,$ $p=.000***$	
	기혼	7 (2.5)	85 (30.6)	110 (39.6)	6 (2.2)	42 (15.1)	6 (2.2)	22 (7.9)	278 (100)		
	기타	0 (0.0)	10 (71.4)	2 (14.3)	0 (0.0)	1 (7.1)	0 (0.0)	1 (7.1)	14 (100)		
직업	학생	8 (33.3)	5 (20.8)	1 (4.2)	2 (8.3)	6 (25.0)	0 (0.0)	2 (8.3)	24 (100)	$\chi^2=110.69,$ $df=30,$ $p=.000***$	
	회사원	16 (21.6)	14 (18.9)	17 (23.0)	3 (4.1)	10 (13.5)	7 (9.5)	7 (9.5)	74 (100)		
	전문직	18	21	13	6	20	6	18	102		

		(17.6)	(20.6)	(12.7)	(5.9)	(19.6)	(5.9)	(17.6)	(100)	
	서비스직	3	7	14	2	10	3	3	42	
	자영업	1	16	15	1	6	3	4	46	
	전업	(2.2)	(34.8)	(32.6)	(2.2)	(13.0)	(6.5)	(8.7)	(100)	
	주부	1	49	69	1	23	2	8	153	
		(0.7)	(32.0)	(45.1)	(0.7)	(15.0)	(1.3)	(5.2)	(100)	
월 소득	200만원 이하	30	49	62	8	39	9	22	219	χ ² =14.41, df=12, p=.275
	201-300만원	(13.7)	(22.4)	(28.3)	(3.7)	(17.8)	(4.1)	(10.0)	(100)	
	301-300만원	15	35	33	5	19	6	14	127	
	(11.8)	(27.6)	(26.0)	(3.9)	(15.0)	(4.7)	(11.0)	(100)		
	301만원 이상	2	28	35	2	17	6	8	98	
		(2.0)	(28.6)	(35.7)	(2.0)	(17.3)	(6.1)	(8.2)	(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 이하	19	53	65	7	36	7	23	210	χ ² =11.59, df=12, p=.479
	11-20만원	(9.0)	(25.2)	(31.0)	(3.3)	(17.1)	(3.3)	(11.0)	(100)	
	21만원	14	36	39	2	20	5	10	126	
	(11.1)	(28.6)	(31.0)	(1.6)	(15.9)	(4.0)	(7.9)	(100)		
	21만원 이상	14	23	25	6	19	9	11	107	
		(13.1)	(21.5)	(23.4)	(5.6)	(17.8)	(8.4)	(10.3)	(100)	

** p<0.01, *** p<0.001

4) 조사대상자의 피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피부문제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10>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통이다(50.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받는다(34.1%), 받지 않는다(8.8%), 매우 받는다(5.4%), 전혀 받지 않는다(1.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받는다(46.2%), 보통이다(37.5%), 매우 받는다(11.5%), 30~39세의 경우 보통이다(47.7%), 받는다(42.1%), 받지 않는다(5.6%), 40~49세의 경우 보통이다(57.9%), 받는다(27.2%), 받지 않는다(6.1%), 50세 이상의 경우 보통이다(56.8%), 받는다(22.9%), 받지 않는다(17.8%)순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받는다(45.6%), 보통이다(38.8%), 매우 받는다(10.2%), 기혼의 경우 보통이다(56.8%), 받는다(28.1%), 받지 않는다(10.8%),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보통이다(57.1%), 받는다(28.6%), 전혀 받지 않는다(7.1%), 받는다(7.1%)순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받는다(45.8%), 보통이다(33.3%), 매우 받는다(12.5%), 회사원의 경우 보통이다(52.7%), 받는다(40.5%), 받지 않는다(4.1%), 전문직의 경우 받는다(46.1%),보통이다(39.2%),매우 받는다(8.8%), 서비스직의 경우 보통이다(48.8%), 받는다(34.1%), 매우 받는다(9.8%), 자영업의 경우 보통이다(39.1%), 받는다(32.6%), 받지 않는다(19.6%), 전업주부의 경우 보통이다(64.1%), 받는다(20.3%), 받지 않는다(11.1%)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10> 조사대상자의 피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구분	매우 받는다	받는다	보통 이다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합계		
	(%)	(%)	(%)	(%)	(%)	(%)		
연령	전체	24(5.4)	151(34.1)	223(50.3)	39(8.8)	6(1.4)	443(100)	$\chi^2=52.34$, df=12, p=.000***
	29세 이하	12(11.5)	48(46.2)	39(37.5)	5(4.8)	0(0.0)	104(100)	
	30-39세	5(4.7)	45(42.1)	51(47.7)	6(5.6)	0(0.0)	107(100)	
	40-49세	7(6.1)	31(27.2)	66(57.9)	7(6.1)	3(2.6)	114(100)	
	50세이상	0(0.0)	27(22.9)	67(56.8)	21(17.8)	3(2.5)	118(100)	
최종 학력	고졸	8(6.8)	29(24.6)	66(55.9)	10(8.5)	5(4.2)	118(100)	$\chi^2=33.14$, df=16, p=.007**
	전문대학졸	9(8.6)	33(31.4)	58(55.2)	4(3.8)	1(1.0)	105(100)	
	대학교졸	7(4.2)	68(41.0)	71(42.8)	20(12.0)	0(0.0)	166(100)	
	대학원수료이상	0(0.0)	17(51.5)	15(45.5)	1(3.0)	0(0.0)	33(100)	
결혼 여부	기타	0(0.0)	4(36.4)	6(54.5)	1(9.1)	0(0.0)	11(100)	$\chi^2=36.28$, df=8, p=.000***
	미혼	15(10.2)	67(45.6)	57(38.8)	8(5.4)	0(0.0)	147(100)	
	기혼	7(2.5)	78(28.1)	158(56.8)	30(10.8)	5(1.8)	278(100)	
직업	기타	1(7.1)	4(28.6)	8(57.1)	0(0.0)	1(7.1)	14(100)	$\chi^2=50.89$, df=20, p=.000***
	학생	3(12.5)	11(45.8)	8(33.3)	2(8.3)	0(0.0)	24(100)	
	회사원	2(2.7)	30(40.5)	39(52.7)	3(4.1)	0(0.0)	74(100)	
	전문직	9(8.8)	47(46.1)	40(39.2)	5(4.9)	1(1.0)	102(100)	
	서비스직	4(9.8)	14(34.1)	20(48.8)	3(7.3)	0(0.0)	41(100)	
	자영업	2(4.3)	15(32.6)	18(39.1)	9(19.6)	2(4.3)	46(100)	
월 소득	전업주부	4(2.6)	31(20.3)	98(64.1)	17(11.1)	3(2.0)	153(100)	$\chi^2=9.348$, df=8, p=.314
	200만원이하	15(6.8)	74(33.8)	108(49.3)	18(8.2)	4(1.8)	219(100)	
	201-300만원	7(5.6)	36(28.6)	72(57.1)	10(7.9)	1(0.8)	126(100)	
피부 미용 비용	301만원이상	2(2.0)	41(41.8)	43(43.9)	11(11.2)	1(1.0)	98(100)	$\chi^2=17.42$, df=8, p=.026*
	10만원이하	10(4.8)	58(27.6)	119(56.7)	20(9.5)	3(1.4)	210(100)	
	11-20만원	5(4.0)	43(34.1)	64(50.8)	11(8.7)	3(2.4)	126(100)	
	21만원이상	9(8.5)	49(46.2)	40(37.7)	8(7.5)	0(0.0)	106(100)	

* p<0.05, ** p<0.01, *** p<0.001

5)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에 대한 주된 영향 요인

피부상태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와 같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27.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평소 피부관리 부족(23.6%), 식습관(18.5%), 자외선 노출(13.3%), 유전(9.0%), 수면부족(8.3%),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식습관(35.2%), 스트레스(25.7%), 평소 피부관리 부족(20.0%), 30~39세의 경우 스트레스(41.1%), 식습관(19.6%), 평소 피부관리 부족(19.6%), 40~49세의 경우 자외선 노출(24.6%), 스트레스(23.7%), 평소 피부관리 부족 (15.8%), 50세 이상의 경우 평소 피부관리 부족(38.1%), 스트레스(19.5%), 자외선 노출 (14.4%)순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식습관(33.8%), 스트레스(31.1%), 평소 피부관리 부족(14.9%), 기혼의 경우 평소 피부관리 부족이 (29.1%)스트레스가 (25.5%),자외선 노출이 (15.5%),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수면부족(35.7%), 스트레스(28.6%), 자외선 노출(21.4%) 순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식습관(33.3%), 스트레스(20.8%), 수면부족(16.7%), 회사원의 경우 스트레스(36.5%), 식습관(21.6%), 평소 피부관리 부족(14.9%), 전문직의 경우 스트레스(41.2%), 식습관(24.5%), 평소 피부관리 부족 (18.6%), 서비스직의 경우 식습관 (23.8%), 스트레스 (23.8%), 자외선 노출 (16.7%), 자영업의 경우 스트레스(39.1%), 자외선 노출(17.4%), 평소 피부관리 부족(15.2%), 전업주부의 경우 평소 피부관리 부족(37.3%), 자외선 노출 (18.3%), 식습관(12.4%)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11> 조사대상자의 피부상태에 대한 주된 영향 요인

구성	식습관	자외선 노출	유전	수면 부족	스트레스	피부 관리 부족	합계		
	(%)	(%)	(%)	(%)	(%)	(%)	(%)		
연령	전체	82(18.5)	59(13.3)	40(9.0)	37(8.3)	121(27.3)	105(23.6)	44(100)	$\chi^2=81.61$, df=15, p=.000***
	29세 이하	37(35.2)	6(5.7)	9(8.6)	5(4.8)	27(25.7)	21(20.0)	105(100)	
	30-39세	21(19.6)	8(7.5)	8(7.5)	5(4.7)	44(41.1)	21(19.6)	107(100)	
	40-49세	12(10.5)	28(24.6)	17(14.9)	12(10.5)	27(23.7)	18(15.8)	114(100)	
	50세 이상	12(10.2)	17(14.4)	6(5.1)	15(12.7)	23(19.5)	45(38.1)	118(100)	
최종 학력	고졸	21(17.8)	22(18.6)	10(8.5)	10(8.5)	23(19.5)	32(27.1)	118(100)	$\chi^2=36.68$, df=20, p=.013*
	전문대학졸	18(17.1)	12(11.4)	11(10.5)	12(11.4)	24(22.9)	28(26.7)	105(100)	
	대학교졸	37(22.3)	20(12.0)	15(9.0)	13(7.8)	55(33.1)	26(15.7)	166(100)	
	대학원졸이상	5(14.7)	1(2.9)	1(2.9)	0(0.0)	17(50.0)	10(29.4)	34(100)	
	기타	1(9.1)	0(0.0)	1(9.1)	2(18.2)	2(18.2)	5(45.5)	11(100)	
결혼 여부	미혼	50(33.8)	10(6.8)	13(8.8)	7(4.7)	46(31.1)	22(14.9)	148(100)	$\chi^2=61.50$, df=10, p=.000***
	기혼	32(11.5)	43(15.5)	27(9.7)	24(8.6)	71(25.5)	81(29.1)	278(100)	
	기타	0(0.0)	3(21.4)	0(0.0)	5(35.7)	4(28.6)	2(14.3)	14(100)	
직업	학생	8(33.3)	3(12.5)	1(4.2)	4(16.7)	5(20.8)	3(12.5)	24(100)	$\chi^2=74.91$, df=25, p=.000***
	회사원	16(21.6)	6(8.1)	7(9.5)	7(9.5)	27(36.5)	11(14.9)	74(100)	
	전문직	25(24.5)	7(6.9)	5(4.9)	4(3.9)	42(41.2)	19(18.6)	102(100)	
	서비스직	10(23.8)	7(16.7)	6(14.3)	3(7.1)	10(23.8)	6(14.3)	42(100)	
	자영업	4(8.7)	8(17.4)	5(10.9)	4(8.7)	18(39.1)	7(15.2)	46(100)	
	전업주부	19(12.4)	28(18.3)	16(10.5)	15(9.8)	18(11.8)	57(37.3)	153(100)	
월 소득	200만원이하	46(21.0)	27(12.3)	20(9.1)	18(8.2)	46(21.0)	62(28.3)	219(100)	$\chi^2=21.989$, df=10, p=.015*
	201-300만원	22(17.3)	17(13.4)	17(13.4)	8(6.3)	43(33.9)	20(15.7)	127(100)	
	301만원이상	14(14.3)	15(15.3)	3(3.1)	11(11.2)	32(32.7)	23(23.5)	98(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이하	37(17.6)	29(13.8)	18(8.6)	16(7.6)	50(23.8)	60(28.6)	210(100)	$\chi^2=13.505$, df=10, p=.197
	11-20만원	22(17.5)	17(13.5)	17(13.5)	12(9.5)	34(27.0)	24(19.0)	126(100)	
	21만원이상	23(21.5)	12(11.2)	5(4.7)	9(8.4)	37(34.6)	21(19.6)	107(100)	

* p<0.05, *** p<0.001

6) 조사대상자의 피부문제점 개선 의향

피부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렇다(59.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보통이다(23.9%), 매우 그렇다(16.0%), 그렇지 않다(1.1%), 전혀 그렇지 않다(0.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그렇다(62.9%), 매우 그렇다(25.7%), 보통이다(11.4%), 30~39세의 경우 그렇다(55.1%), 보통이다(28.0%) 매우 그렇다(16.8%), 40~49세의 경우 그렇다(64.9%), 보통이다(21.1%), 매우 그렇다(13.2%), 50세 이상의 경우 그렇다(53.4%), 보통이다(33.9%), 매우 그렇다(9.3%)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결혼 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그렇다(60.8%), 매우 그렇다(23.6%), 보통이다(15.5%), 기혼의 경우 그렇다(59.7%), 보통이다(27.0%), 매우 그렇다(11.5%),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그렇다(42.9%), 보통이다(42.9%), 매우 그렇다(14.3%)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그렇다(58.3%), 매우 그렇다(20.8%), 보통이다(20.8%), 회사원의 경우 그렇다(56.8%), 매우 그렇다(25.7%), 보통이다(17.6%), 전문직의 경우 그렇다(63.7%), 매우 그렇다(18.6%), 보통이다(17.6%), 서비스직의 경우 그렇다(64.3%), 매우 그렇다(19.0%), 보통이다(16.7%), 자영업의 경우 그렇다(52.2%), 매우 그렇다(23.9%), 보통이다(21.7%), 전업주부의 경우 그렇다(56.9%), 보통이다(34.6%), 매우 그렇다(5.9%) 순으로 나타났다($p < .01$).

<표 12> 조사대상자의 피부문제점 개선 의향

구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	(%)	(%)	(%)	(%)	(%)		
연령	전체	71(16.0)	262(59.0)	106(23.9)	5(1.1)	0(0.0)	444(100)	$\chi^2=32.70$, df=9, p=.000***
	29세이하	27(25.7)	66(62.9)	12(11.4)	0(0.0)	0(0.0)	105(100)	
	30-39세	18(16.8)	59(55.1)	30(28.0)	0(0.0)	0(0.0)	107(100)	
	40-49세	15(13.2)	74(64.9)	24(21.1)	1(0.9)	0(0.0)	114(100)	
	50세이상	11(9.3)	63(53.4)	40(33.9)	4(3.4)	0(0.0)	118(100)	
최종 학력	고졸	19(16.1)	59(50.0)	37(31.4)	3(2.5)	0(0.0)	118(100)	$\chi^2=18.41$, df=12, p=.104
	전문대학졸	18(17.1)	63(60.0)	23(21.9)	1(1.0)	0(0.0)	105(100)	
	대학교졸	28(16.9)	103(62.0)	35(21.1)	0(0.0)	0(0.0)	166(100)	
	대학원졸이상	5(14.7)	24(70.6)	5(14.7)	0(0.0)	0(0.0)	34(100)	
결혼 여부	미혼	35(23.6)	90(60.8)	23(15.5)	0(0.0)	0(0.0)	148(100)	$\chi^2=20.30$, df=6, p=.002**
	기혼	32(11.5)	166(59.7)	75(27.0)	5(1.8)	0(0.0)	278(100)	
	기타	2(14.3)	6(42.9)	6(42.9)	0(0.0)	0(0.0)	14(100)	
직업	학생	5(20.8)	14(58.3)	5(20.8)	0(0.0)	0(0.0)	24(100)	$\chi^2=35.44$, df=15, p=.002**
	회사원	19(25.7)	42(56.8)	13(17.6)	0(0.0)	0(0.0)	74(100)	
	전문직	19(18.6)	65(63.7)	18(17.6)	0(0.0)	0(0.0)	102(100)	
	서비스직	8(19.0)	27(64.3)	7(16.7)	0(0.0)	0(0.0)	42(100)	
	자영업	11(23.9)	24(52.2)	10(21.7)	1(2.2)	0(0.0)	46(100)	
	전업주부	9(5.9)	87(56.9)	53(34.6)	4(2.6)	0(0.0)	153(100)	
월소득	200만원이하	37(16.9)	127(58.0)	50(22.8)	5(2.3)	0(0.0)	219(100)	$\chi^2=12.17$, df=6, p=.058
	201-300만원	26(20.5)	73(57.5)	28(22.0)	0(0.0)	0(0.0)	127(100)	
	301만원이상	8(8.2)	62(63.3)	28(28.6)	0(0.0)	0(0.0)	98(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이하	25(11.9)	127(60.5)	55(26.2)	3(1.4)	0(0.0)	210(100)	$\chi^2=8.93$, df=6, p=.177
	11-20만원	21(16.7)	74(58.7)	29(23.0)	2(1.6)	0(0.0)	126(100)	
	21만원이상	25(23.4)	61(57.0)	21(19.6)	0(0.0)	0(0.0)	107(100)	

** p<0.01, *** p<0.001

4.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실태

1)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피부관리 장소

선호하는 피부관리 장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3>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홈케어(40.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전문피부관리실(32.7%),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1.2%), 화장품 매장 내 피부관리실(5.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35.2%), 전문피부관리실(33.3%), 홈케어(30.5%), 30~39세의 경우 홈케어(39.3%), 전문피부관리실이(32.7%),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3.4%), 40~49세의 경우 홈케어(40.4%), 전문피부관리실(36.0%),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이(20.2%), 50세 이상의 경우 홈케어(50.8%), 전문피부관리실(28.8%), 화장품 매장 내 피부관리실(12.7%)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전문피부관리실(33.1%),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이(32.4%), 홈케어(31.8%), 기혼의 경우 홈케어(45.0%), 전문피부관리실(32.4%),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5.5%),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홈케어(42.9%), 전문피부관리실(35.7%),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4.3%) 순으로 나타났다($p < .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홈케어(54.2%), 전문피부관리실(25.0%),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0.8%), 회사원의 경우 홈케어(33.8%),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31.1%), 전문피부관리실(29.7%), 전문직의 경우 전문피부관리실(37.3%), 홈케어(30.4%),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8.4%), 서비스직의 경우 홈케어(33.3%), 전문피부관리실(31.0%),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8.6%), 자영업의 경우 홈케어(43.5%), 전문피부관리실(41.3%),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0.9%), 전업주부의 경우 홈케어(49.7%), 전문피부관리실(29.4%),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3.1%) 순으로 나타났다($p < .05$). 월소득에서 200만원이하의 경우 홈케어(46.1%), 전문피부관리실(25.6%),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2.4%), 201-300만원의 경우 홈케어(40.2%), 전문피부관리실(33.9%),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1.3%), 301만원이상의 경우 전문피부관리실(46.9%), 홈케어(28.6%),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8.4%) 순으로 나타났다($p<.05$). 피부미용 비용에서 10만원이하의 경우 홈케어(50.5%), 전문피부관리실(25.7%),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9.5%), 11-20만원의 경우 홈케어(42.1%), 전문피부관리실(33.3%),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17.5%), 21만원이상의 경우 전문피부관리실(45.8%),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29.0%), 홈케어(18.7%)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13>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피부관리 장소

구성	전문피부 관리실	병·의원 내 피부 관리실	화장품 매장 내 피부 관리실	홈케어	합계		
	(%)	(%)	(%)	(%)	(%)		
전체	145(32.7)	94(21.2)	25(5.6)	180(40.5)	444(100)		
연령	29세 이하	35(33.3)	37(35.2)	1(1.0)	32(30.5)	105(100)	$\chi^2=42.70$, df=9, p=.000***
	30-39세	35(32.7)	25(23.4)	5(4.7)	42(39.3)	107(100)	
	40-49세	41(36.0)	23(20.2)	4(3.5)	46(40.4)	114(100)	
	50세 이상	34(28.8)	9(7.6)	15(12.7)	60(50.8)	118(100)	
최종 학력	고졸	26(22.0)	21(17.8)	9(7.6)	62(52.5)	118(100)	$\chi^2=36.70$, df=12, p=.000***
	전문대학졸	29(27.6)	28(26.7)	6(5.7)	42(40.0)	105(100)	
	대학교졸	69(41.6)	36(21.7)	7(4.2)	54(32.5)	166(100)	
	대학원수료이상	16(47.1)	9(26.5)	0(0.0)	9(26.5)	34(100)	
결혼 여부	미혼	49(33.1)	48(32.4)	4(2.7)	47(31.8)	148(100)	$\chi^2=21.19$, df=6, p=.002**
	기혼	90(32.4)	43(15.5)	20(7.2)	125(45.0)	278(100)	
	기타	5(35.7)	2(14.3)	1(7.1)	6(42.9)	14(100)	
직업	학생	6(25.0)	5(20.8)	0(0.0)	13(54.2)	24(100)	$\chi^2=28.68$, df=15, p=.018*
	회사원	22(29.7)	23(31.1)	4(5.4)	25(33.8)	74(100)	
	전문직	38(37.3)	29(28.4)	4(3.9)	31(30.4)	102(100)	
	서비스직	13(31.0)	12(28.6)	3(7.1)	14(33.3)	42(100)	
	자영업	19(41.3)	5(10.9)	2(4.3)	20(43.5)	46(100)	
	전업주부	45(29.4)	20(13.1)	12(7.8)	76(49.7)	153(100)	
월 소득	200만원이하	56(25.6)	49(22.4)	13(5.9)	101(46.1)	219(100)	$\chi^2=15.47$, df=6, p=.017*
	201-300만원	43(33.9)	27(21.3)	6(4.7)	51(40.2)	127(100)	
	301만원이상	46(46.9)	18(18.4)	6(6.1)	28(28.6)	98(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이하	54(25.7)	41(19.5)	9(4.3)	106(50.5)	210(100)	$\chi^2=32.089$, df=6, p=.000***
	11-20만원	42(33.3)	22(17.5)	9(7.1)	53(42.1)	126(100)	
	21만원이상	49(45.8)	31(29.0)	7(6.5)	20(18.7)	107(100)	

* p<0.05, ** p<0.01, *** p<0.001

2)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피부관리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이 전체적으로 젊음유지·노화방지(4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피부고민해결(39.6%), 외모콤플렉스 해소(5.4%), 기타(4.5%),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2.7%), 주위의 권유(1.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피부고민해결(59.0%), 젊음유지·노화방지(28.6%), 외모콤플렉스해소(8.6%), 30~39세의 경우 피부고민해결(42.1%), 젊음유지·노화방지(41.1%), 외모콤플렉스해소(7.5%), 40~49세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47.8%), 피부고민해결(39.8%), 기타(7.1%), 50세 이상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64.1%), 피부고민해결(19.7%), 기타(10.3%) 순으로 나타났다($p < 0.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피부고민해결(52.0%), 젊음유지·노화방지(35.1%), 외모콤플렉스해소(7.4%), 기혼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53.3%), 피부고민해결(32.2%), 기타(5.8%),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피부고민해결(57.1%), 젊음유지·노화방지(21.4%), 기타(14.3%)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피부고민해결(50.0%), 젊음유지·노화방지(29.2%), 외모콤플렉스해소(12.5%), 회사원의 경우 피부고민해결(46.6%), 젊음유지·노화방지(37.0%), 외모콤플렉스해소(9.6%), 전문직의 경우 피부고민해결(56.9%), 젊음유지·노화방지(33.3%), 외모콤플렉스해소(4.9%), 서비스직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47.6%), 피부고민해결(35.7%), 외모콤플렉스해소(7.1%), 자영업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67.4%), 피부고민해결(19.6%), 기타(6.5%), 전업주부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55.3%), 피부고민해결(29.6%), 기타(8.6%)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14>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

구성	젊음유 자노화 방지	피부 고민 해결	외모폼 플렉스 해소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주위의 권유	기타	합계		
	(%)	(%)	(%)	(%)	(%)	(%)	(%)		
연령	전체	20(45.9)	17(39.6)	24(5.4)	12(2.7)	8(1.8)	20(4.5)	44(100)	$\chi^2=72.48$, df=15, p=.000***
	29세 이하	30(28.6)	62(59.0)	9(8.6)	3(2.9)	1(1.0)	0(0.0)	105(100)	
	30-39세	44(41.1)	45(42.1)	8(7.5)	5(4.7)	5(4.7)	0(0.0)	107(100)	
	40-49세	54(47.8)	45(39.8)	4(3.5)	2(1.8)	0(0.0)	8(7.1)	113(100)	
	50세 이상	75(64.1)	23(19.7)	3(2.6)	2(1.7)	2(1.7)	12(10.3)	117(100)	
최종 학력	고졸	58(49.2)	38(32.2)	8(6.8)	1(0.8)	1(0.8)	12(10.2)	118(100)	$\chi^2=50.16$, df=20, p=.000***
	전문대학졸	46(43.8)	45(42.9)	7(6.7)	5(4.8)	0(0.0)	2(1.9)	105(100)	
	대학교졸	76(46.3)	70(42.7)	8(4.9)	4(2.4)	6(3.7)	0(0.0)	164(100)	
	대학원수료이상	12(35.3)	19(55.9)	0(0.0)	2(5.9)	1(2.9)	0(0.0)	34(100)	
	기타	7(63.6)	1(9.1)	1(9.1)	0(0.0)	0(0.0)	2(18.2)	11(100)	
결혼 여부	미혼	52(35.1)	77(52.0)	11(7.4)	4(2.7)	4(2.7)	0(0.0)	148(100)	$\chi^2=34.13$, df=10, p=.001***
	기혼	147(53.3)	89(32.2)	12(4.3)	8(2.9)	4(1.4)	16(5.8)	276(100)	
	기타	3(21.4)	8(57.1)	1(7.1)	0(0.0)	0(0.0)	2(14.3)	14(100)	
직업	학생	7(29.2)	12(50.0)	3(12.5)	1(4.2)	0(0.0)	1(4.2)	24(100)	$\chi^2=58.06$, df=25, p=.000***
	회사원	27(37.0)	34(46.6)	7(9.6)	2(2.7)	1(1.4)	2(2.7)	73(100)	
	전문직	34(33.3)	58(56.9)	5(4.9)	3(2.9)	2(2.0)	0(0.0)	102(100)	
	서비스직	20(47.6)	15(35.7)	3(7.1)	1(2.4)	2(4.8)	1(2.4)	42(100)	
	자영업	31(67.4)	9(19.6)	1(2.2)	0(0.0)	2(4.3)	3(6.5)	46(100)	
	전업주부	84(55.3)	45(29.6)	4(2.6)	5(3.3)	1(0.7)	13(8.6)	152(100)	
월소 득	200만원이하	90(41.1)	92(42.0)	13(5.9)	6(2.7)	4(1.8)	14(6.4)	219(100)	$\chi^2=10.40$, df=10, p=.406
	201-300만원	58(46.0)	52(41.3)	5(4.0)	4(3.2)	3(2.4)	4(3.2)	126(100)	
	301만원이상	55(56.7)	31(32.0)	6(6.2)	2(2.1)	1(1.0)	2(2.1)	97(100)	
피부 미용 비용	10만원이하	88(42.1)	82(39.2)	11(5.3)	8(3.8)	4(1.9)	16(7.7)	209(100)	$\chi^2=16.20$, df=10, p=.094
	11-20만원	65(52.0)	45(36.0)	7(5.6)	3(2.4)	3(2.4)	2(1.6)	125(100)	
	21만원이상	50(46.7)	48(44.9)	6(5.6)	1(0.9)	1(0.9)	1(0.9)	107(100)	

*** p<0.001

3) 조사대상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피부관리 유형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피부관리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이 전체적으로 노화관리(29.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미백관리(21.6%), 보습관리(20.5%), 트러블관리(14.4%), 모공관리(8.6%), 홍조·예민피부관리(5.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트러블관리(41.9%), 보습관리(20.0%), 모공관리(15.2%), 30-39세의 경우 보습관리(29.0%), 노화관리(20.6%), 트러블관리(18.7%), 40-49세의 경우 미백관리(41.2%), 노화관리(38.6%), 보습관리(14.0%), 50세 이상의 경우 노화관리(52.5%), 미백관리(21.2%), 보습관리(19.5%) 순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트러블관리(31.8%), 보습관리(23.0%), 모공관리(12.8%), 기혼의 경우 노화관리(39.6%), 미백관리(26.6%), 보습관리(18.7%),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미백관리(42.9%), 보습관리(21.4%), 노화관리(14.3%), 트러블관리(14.3%) 순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트러블관리(41.7%), 보습관리(33.3%), 미백관리(16.7%), 회사원의 경우 트러블관리(25.7%), 노화관리(25.7%), 보습관리(14.9%), 전문직의 경우 트러블관리(24.5%), 보습관리(21.6%), 미백관리(19.6%), 서비스직의 경우 보습관리(31.0%), 노화관리(26.2%), 미백관리(14.3%), 자영업의 경우 노화관리(34.8%), 미백관리(32.6%), 보습관리(15.2%), 전.업주부의 경우 노화관리(46.4%), 미백관리(26.8%), 보습관리(19.6%)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15> 조사대상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피부관리 유형

구성	보습	미백	모공	노화	트러블	홍조예	합계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관리	민피부 관리			
	(%)	(%)	(%)	(%)	(%)	(%)	(%)		
연령	전체	91(20.5)	96(21.6)	38(8.6)	130(29.3)	64(14.4)	25(5.6)	444(100)	
	29세 이하	21(20.0)	12(11.4)	16(15.2)	2(1.9)	44(41.9)	10(9.5)	105(100)	$\chi^2=209.66,$ df=15, p=0.000***
	30-39세	31(29.0)	12(11.2)	9(8.4)	22(20.6)	20(18.7)	13(12.1)	107(100)	
	40-49세	16(14.0)	47(41.2)	6(5.3)	44(38.6)	0(0.0)	1(0.9)	114(100)	
	50세 이상	23(19.5)	25(21.2)	7(5.9)	62(52.5)	0(0.0)	1(0.8)	118(100)	
최종 학력	고졸	20(16.9)	25(21.2)	4(3.4)	52(44.1)	13(11.0)	4(3.4)	118(100)	
	전문대학졸	16(15.2)	27(25.7)	12(11.4)	29(27.6)	17(16.2)	4(3.8)	105(100)	$\chi^2=49.86,$ df=20, p=0.000***
	대학교졸	46(27.7)	31(18.7)	13(7.8)	39(23.5)	26(15.7)	11(6.6)	166(100)	
	대학원수료이상	5(14.7)	6(17.6)	5(14.7)	4(11.8)	8(23.5)	6(17.6)	34(100)	
기타	2(18.2)	3(27.3)	3(27.3)	3(27.3)	0(0.0)	0(0.0)	11(100)		
결혼 여부	미혼	34(23.0)	16(10.8)	19(12.8)	16(10.8)	47(31.8)	16(10.8)	148(100)	$\chi^2=105.59,$ df=10, p=0.000***
	기혼	52(18.7)	74(26.6)	19(6.8)	110(39.6)	15(5.4)	8(2.9)	278(100)	
	기타	3(21.4)	6(42.9)	0(0.0)	2(14.3)	2(14.3)	1(7.1)	14(100)	
직업	학생	8(33.3)	4(16.7)	1(4.2)	0(0.0)	10(41.7)	1(4.2)	24(100)	
	회사원	11(14.9)	10(13.5)	8(10.8)	19(25.7)	19(25.7)	7(9.5)	74(100)	$\chi^2=118.83,$ df=25, p=0.000***
	전문직	22(21.6)	20(19.6)	16(15.7)	12(11.8)	25(24.5)	7(6.9)	102(100)	
	서비스직	13(31.0)	6(14.3)	4(9.5)	11(26.2)	3(7.1)	5(11.9)	42(100)	
	자영업	7(15.2)	15(32.6)	4(8.7)	16(34.8)	1(2.2)	3(6.5)	46(100)	
전업주부	30(19.6)	41(26.8)	5(3.3)	71(46.4)	4(2.6)	2(1.3)	153(100)		
월 소득	200만원이하	46(21.0)	38(17.4)	21(9.6)	68(31.1)	36(16.4)	10(4.6)	219(100)	$\chi^2=15.15,$ df=10, p=.126
	201-300만원	23(18.1)	34(26.8)	12(9.4)	28(22.0)	21(16.5)	9(7.1)	127(100)	
	301만원이상	22(22.4)	24(24.5)	5(5.1)	34(34.7)	7(7.1)	6(6.1)	98(100)	
피부 비용 비용	10만원이하	47(22.4)	40(19.0)	23(11.0)	66(31.4)	27(12.9)	7(3.3)	210(100)	$\chi^2=15.32,$ df=10, p=.121
	11-20만원	25(19.8)	33(26.2)	7(5.6)	36(28.6)	19(15.1)	6(4.8)	126(100)	
	21만원이상	19(17.8)	23(21.5)	8(7.5)	27(25.2)	18(16.8)	12(11.2)	107(100)	

*** p<0.001

4)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에 관한 정보 출처

피부관리 정보 출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6>와 같이 전체적으로 대중매체(33.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지인소개(32.0%), 인터넷(26.3%), 신문이나 잡지(5.9%), 전단지(2.1%)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인터넷(53.4%), 지인소개(32.0%), 대중매체(10.7%), 30~39세의 경우 인터넷(34.6%), 대중매체(29.0%), 지인소개(24.3%), 40~49세의 경우 대중매체(40.7%), 지인소개(36.3%), 인터넷(15.0%), 50세 이상의 경우 대중매체(52.2%), 지인소개(34.8%), 신문이나 잡지(5.2%), 인터넷(5.2%) 순으로 나타났다($p<.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인터넷(51.4%), 지인소개(28.1%), 대중매체(17.1%), 기혼의 경우 대중매체(42.9%), 지인소개(33.5%), 인터넷(13.5%),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지인소개(35.7%), 대중매체(28.6%), 인터넷(21.4%) 순으로 나타났다($p<.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인터넷(58.3%), 대중매체(25.0%), 신문이나 잡지(8.3%), 지인소개(8.3%), 회사원의 경우 인터넷(41.7%), 지인소개(34.7%), 대중매체(19.4%), 전문직의 경우 인터넷(35.3%), 지인소개(32.4%), 대중매체(23.5%), 서비스직의 경우 인터넷(40.5%), 지인소개(38.1%), 대중매체(16.7%), 자영업의 경우 대중매체(39.1%), 지인소개(34.8%), 신문이나 잡지(15.2%), 전업주부의 경우 대중매체(52.7%), 지인소개(31.3%), 인터넷(8.7%) 순으로 나타났다($p<.001$).

<표 16>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에 관한 정보 출처

구성	대중매체	신문잡지	인터넷	지인소개	전단지	합계		
	(%)	(%)	(%)	(%)	(%)	(%)		
연령	전체	148(33.8)	26(5.9)	115(26.3)	140(32.0)	9(2.1)	438(100)	$\chi^2=94.44$, df=12, p=.000***
	29세 이하	11(10.7)	3(2.9)	55(53.4)	33(32.0)	1(1.0)	103(100)	
	30-39세	31(29.0)	10(9.3)	37(34.6)	26(24.3)	3(2.8)	107(100)	
	40-49세	46(40.7)	7(6.2)	17(15.0)	41(36.3)	2(1.8)	113(100)	
	50세 이상	60(52.2)	6(5.2)	6(5.2)	40(34.8)	3(2.6)	115(100)	
최종학력	고졸	51(43.6)	6(5.1)	21(17.9)	37(31.6)	2(1.7)	117(100)	$\chi^2=37.30$, df=16, p=.002**
	전문대학졸	28(26.9)	4(3.8)	31(29.8)	38(36.5)	3(2.9)	104(100)	
	대학교졸	44(27.0)	11(6.7)	54(33.1)	51(31.3)	3(1.8)	163(100)	
	대학원수료이상	11(32.4)	4(11.8)	8(23.5)	11(32.4)	0(0.0)	34(100)	
결혼여부	기타	9(90.0)	0(0.0)	0(0.0)	0(0.0)	1(10.0)	10(100)	$\chi^2=79.39$, df=8, p=.000***
	미혼	25(17.1)	3(2.1)	75(51.4)	41(28.1)	2(1.4)	146(100)	
	기혼	118(42.9)	21(7.6)	37(13.5)	92(33.5)	7(2.5)	275(100)	
직업	기타	4(28.6)	2(14.3)	3(21.4)	5(35.7)	0(0.0)	14(100)	$\chi^2=90.01$, df=20, p=.000***
	학생	6(25.0)	2(8.3)	14(58.3)	2(8.3)	0(0.0)	24(100)	
	회사원	14(19.4)	2(2.8)	30(41.7)	25(34.7)	1(1.4)	72(100)	
	전문직	24(23.5)	7(6.9)	36(35.3)	33(32.4)	2(2.0)	102(100)	
	서비스직	7(16.7)	1(2.4)	17(40.5)	16(38.1)	1(2.4)	42(100)	
	자영업	18(39.1)	7(15.2)	5(10.9)	16(34.8)	0(0.0)	46(100)	
월소득	전업주부	79(52.7)	6(4.0)	13(8.7)	47(31.3)	5(3.3)	150(100)	$\chi^2=20.45$, df=8, p=.009**
	200만원이하	68(31.8)	11(5.1)	68(31.8)	62(29.0)	5(2.3)	214(100)	
	201-300만원	34(26.8)	9(7.1)	36(28.3)	46(36.2)	2(1.6)	127(100)	
피부미용비용	301만원이상	46(47.4)	6(6.2)	11(11.3)	32(33.0)	2(2.1)	97(100)	$\chi^2=6.04$, df=8, p=.643
	10만원이하	69(33.0)	12(5.7)	65(31.1)	60(28.7)	3(1.4)	209(100)	
	11-20만원	44(35.8)	7(5.7)	26(21.1)	43(35.0)	3(2.4)	123(100)	
	21만원이상	35(33.0)	7(6.6)	24(22.6)	37(34.9)	3(2.8)	106(100)	

** p<0.01, *** p<0.001

5)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 장소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피부관리 장소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7>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문성(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이용 가격(22.8%), 인지도(12.3%), 시설과 환경 (6.4%), 직원에 대한 신뢰도 (5.3%), 다양한 프로그램 (2.7%), 교통의 편리성(2.7%), 직원의 친절함(2.3%) 짧은 대기시간(1.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학력에서 고졸의 경우 전문성(35.3%), 이용 가격(28.4%), 인지도(12.9%), 전문대학졸의 경우 전문성(45.6%), 이용 가격(24.3%), 시설과 환경(8.7%), 대학교졸의 경우 전문성(46.3%), 이용 가격(20.7%), 인지도(17.1%), 대학원수료이상의 경우 전문성(55.9%), 시설과 환경(14.7%), 인지도(8.8%), 직원에 대한 신뢰도(8.8%), 기타의 경우 전문성이이용 가격(36.4%), 전문성(27.3%), 인지도(18.2%) 순으로 나타났다($p<.05$).

<표 17>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 장소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구성		안지도	전문성	이용 가격	시설 환경	직원 친절	프로 그램 다양 성	직원 신뢰 도	짧은 대기 시간	교통 편리 성	합계	
		(%)	(%)	(%)	(%)	(%)	(%)	(%)	(%)	(%)	(%)	
연령	전체	54 (12.3)	191 (43.6)	100 (22.8)	28 (6.4)	10 (2.3)	12 (2.7)	23 (5.3)	8 (1.8)	12 (2.7)	438 (100)	$\chi^2=22.40,$ df=24, p=.555
	29세 이하	12 (11.5)	46 (44.2)	30 (28.8)	4 (3.8)	1 (1.0)	0 (0.0)	6 (5.8)	1 (1.0)	4 (3.8)	104 (100)	
	30- 39세	11 (10.4)	51 (48.1)	19 (17.9)	11 (10.4)	2 (1.9)	2 (1.9)	5 (4.7)	1 (0.9)	4 (3.8)	106 (100)	
	40- 49세	16 (14.2)	47 (41.6)	25 (22.1)	9 (8.0)	3 (2.7)	5 (4.4)	4 (3.5)	3 (2.7)	1 (0.9)	113 (100)	
	50세 이상	15 (13.0)	47 (40.9)	26 (22.6)	4 (3.5)	4 (3.5)	5 (4.3)	8 (7.0)	3 (2.6)	3 (2.6)	115 (100)	
	최종 학력	고졸	15 (12.9)	41 (35.3)	33 (28.4)	5 (4.3)	5 (4.3)	3 (2.6)	6 (5.2)	6 (5.2)	2 (1.7)	
전문 대학졸		6 (5.8)	47 (45.6)	25 (24.3)	9 (8.7)	2 (1.9)	3 (2.9)	6 (5.8)	2 (1.9)	3 (2.9)	103 (100)	
대학 교졸		28 (17.1)	76 (46.3)	34 (20.7)	9 (5.5)	1 (0.6)	4 (2.4)	8 (4.9)	0 (0.0)	4 (2.4)	164 (100)	
대학원 수료 이상		3 (8.8)	19 (55.9)	1 (2.9)	5 (14.7)	1 (2.9)	0 (0.0)	3 (8.8)	0 (0.0)	2 (5.9)	34 (100)	
기타		2 (18.2)	3 (27.3)	4 (36.4)	0 (0.0)	0 (0.0)	1 (9.1)	0 (0.0)	0 (0.0)	1 (9.1)	11 (100)	
결혼 여부		미혼	18 (12.3)	69 (47.3)	33 (22.6)	7 (4.8)	1 (0.7)	2 (1.4)	8 (5.5)	2 (1.4)	6 (4.1)	146 (100)
	기혼	33 (12.0)	116 (42.3)	64 (23.4)	18 (6.6)	8 (2.9)	10 (3.6)	13 (4.7)	6 (2.2)	6 (2.2)	274 (100)	
	기타	3 (21.4)	4 (28.6)	3 (21.4)	3 (21.4)	0 (0.0)	0 (0.0)	1 (7.1)	0 (0.0)	0 (0.0)	14 (100)	
직업	학생	3 (12.5)	11 (45.8)	6 (25.0)	1 (4.2)	0 (0.0)	0 (0.0)	1 (4.2)	1 (4.2)	1 (4.2)	24 (100)	$\chi^2=49.12,$ df=40, p=.153
	회사원	8 (11.0)	37 (50.7)	18 (24.7)	2 (2.7)	0 (0.0)	2 (2.7)	1 (1.4)	1 (1.4)	4 (5.5)	73 (100)	

	전문직	11 (11.0)	50 (50.0)	19 (19.0)	8 (8.0)	1 (1.0)	1 (1.0)	7 (7.0)	1 (1.0)	2 (2.0)	100 (100)	
	서비스직	5 (11.9)	18 (42.9)	6 (14.3)	6 (14.3)	2 (4.8)	0 (0.0)	2 (4.8)	1 (2.4)	2 (4.8)	42 (100)	
	자영업	7 (15.6)	24 (53.3)	6 (13.3)	1 (2.2)	0 (0.0)	1 (2.2)	4 (8.9)	2 (4.4)	0 (0.0)	45 (100)	
	전업주부	20 (13.2)	51 (33.8)	44 (29.1)	9 (6.0)	7 (4.6)	8 (5.3)	8 (5.3)	1 (0.7)	3 (2.0)	151 (100)	
월소득	200만원 이하	21 (9.8)	92 (42.8)	58 (27.0)	12 (5.6)	7 (3.3)	4 (1.9)	10 (4.7)	4 (1.9)	7 (3.3)	215 (100)	$\chi^2=22.49,$ df=16, p=.128
	201-300만원	13 (10.3)	59 (46.8)	30 (23.8)	6 (4.8)	1 (0.8)	4 (3.2)	9 (7.1)	2 (1.6)	2 (1.6)	126 (100)	
	301만원 이상	20 (20.6)	40 (41.2)	12 (12.4)	10 (10.3)	2 (2.1)	4 (4.1)	4 (4.1)	2 (2.1)	3 (3.1)	97 (100)	
피부미용비용	10만원 이하	19 (9.2)	88 (42.5)	57 (27.5)	11 (5.3)	6 (2.9)	7 (3.4)	11 (5.3)	4 (1.9)	4 (1.9)	207 (100)	$\chi^2=22.40,$ df=16, p=.131
	11-20만원	14 (11.3)	56 (45.2)	28 (22.6)	6 (4.8)	4 (3.2)	2 (1.6)	8 (6.5)	2 (1.6)	4 (3.2)	124 (100)	
	21만원	21 (19.8)	47 (44.3)	15 (14.2)	11 (10.4)	0 (0.0)	3 (2.8)	3 (2.8)	2 (1.9)	4 (3.8)	106 (100)	
	이상											

* $p < 0.05$

6)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 결정 시 장애가 되는 요인

피부관리 결정시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8>와 같이 전체적으로 비용부담(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시간부족(30.4%), 관리 후 미개선에 걱정(14.4%), 부작용 걱정(5.6%), 지인의 부정적 반응(2.0%), 낮은 인지도(0.0%)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비용부담(47.6%), 시간부족(24.8%), 관리 후 미개선 걱정(21.9%), 30~39세의 경우 시간부족(42.1%), 비용부담(31.8%), 관리 후 미개선 걱정(15.9%), 40~49세의 경우 비용부담(50.0%), 시간부족(30.7%), 관리 후 미개선 걱정(14.0%), 50세 이상의 경우 비용부담(59.3%), 시간부족(24.6%), 관리 후 미개선 걱정(6.8%) 순으로 나타났다($p<.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비용부담(62.5%), 시간부족(20.8%), 부작용 걱정(8.3%), 관리 후 미개선 걱정(8.3%), 회사원의 경우 비용부담(44.6%), 시간부족(37.8%), 관리 후 미개선 걱정(10.8%), 전문직의 경우 시간부족(33.3%), 비용부담(38.2%), 관리 후 미개선 걱정(21.6%), 서비스직의 경우 비용부담(35.7%), 시간부족(35.7%), 관리 후 미개선 걱정(11.9%), 자영업의 경우 시간부족(45.7%), 비용부담(39.1%), 관리 후 미개선 걱정(10.9%), 전업주부의 경우 비용부담(58.2%), 시간부족(20.3%), 관리 후 미개선 걱정(14.4%) 순으로 나타났다($p<.05$). 월소득에서 200만원이하의 경우 비용부담(54.8%), 시간부족(25.6%), 관리 후 미개선 걱정(13.2%), 201-300만원의 경우 비용부담(48.0%), 시간부족(33.9%), 관리 후 미개선 걱정(11.8%), 301만원이상의 경우 시간부족(36.7%), 비용부담(30.6%), 관리 후 미개선 걱정(20.4%) 순으로 나타났다($p<.01$).

<표 18> 조사대상자가 피부관리 결정 시 장애가 되는 요인

구성	비용 부담	부작용 걱정	시간적 부족	지인의 부정적 반응	관리후 미개선 걱정	낮은 인지도	합계		
	(%)	(%)	(%)	(%)	(%)	(%)	(%)		
전체	211 (47.5)	25 (5.6)	135 (30.4)	9 (2.0)	64 (14.4)	0 (0.0)	444 (100)		
연령	29세	50 (47.6)	5 (4.8)	26 (24.8)	1 (1.0)	23 (21.9)	0 (0.0)	105 (100)	$\chi^2=29.28,$ $df=12,$ $p=.004^{**}$
	이하	34 (31.8)	8 (7.5)	45 (42.1)	3 (2.8)	17 (15.9)	0 (0.0)	107 (100)	
	30-39세	57 (50.0)	5 (4.4)	35 (30.7)	1 (0.9)	16 (14.0)	0 (0.0)	114 (100)	
	40-49세	70 (59.3)	7 (5.9)	29 (24.6)	4 (3.4)	8 (6.8)	0 (0.0)	118 (100)	
	50세	75 (63.6)	7 (5.9)	25 (21.2)	2 (1.7)	9 (7.6)	0 (0.0)	118 (100)	
	이상	62 (59.0)	5 (4.8)	24 (22.9)	2 (1.9)	12 (11.4)	0 (0.0)	105 (100)	
최종 학력	전문대학졸	54 (32.5)	11 (6.6)	62 (37.3)	3 (1.8)	36 (21.7)	0 (0.0)	166 (100)	$\chi^2=47.98,$ $df=16,$ $p=.000^{***}$
	대학교졸	10 (29.4)	0 (0.0)	17 (50.0)	2 (5.9)	5 (14.7)	0 (0.0)	34 (100)	
	대학원수료이상	4 (36.4)	1 (9.1)	4 (36.4)	0 (0.0)	2 (18.2)	0 (0.0)	11 (100)	
	기타	63 (42.6)	10 (6.8)	45 (30.4)	3 (2.0)	27 (18.2)	0 (0.0)	148 (100)	
	미혼	142 (51.1)	13 (4.7)	83 (29.9)	5 (1.8)	35 (12.6)	0 (0.0)	278 (100)	
	기혼	5 (35.7)	2 (14.3)	4 (28.6)	1 (7.1)	2 (14.3)	0 (0.0)	14 (100)	
결혼 여부	기타	15 (62.5)	2 (8.3)	5 (20.8)	0 (0.0)	2 (8.3)	0 (0.0)	24 (100)	$\chi^2=8.52,$ $df=8,$ $p=.384$
	학생	33 (44.6)	4 (5.4)	28 (37.8)	1 (1.4)	8 (10.8)	0 (0.0)	74 (100)	
	회사원	39 (38.2)	4 (3.9)	34 (33.3)	3 (2.9)	22 (21.6)	0 (0.0)	102 (100)	
	전문직	15 (35.7)	5 (11.9)	15 (35.7)	2 (4.8)	5 (11.9)	0 (0.0)	42 (100)	
직업	서비스직								

	자영업	18 (39.1)	2 (4.3)	21 (45.7)	0 (0.0)	5 (10.9)	0 (0.0)	46 (100)		
	전업주부	89 (58.2)	8 (5.2)	31 (20.3)	3 (2.0)	22 (14.4)	0 (0.0)	153 (100)		
월소득	200만원 이하	120 (54.8)	12 (5.5)	56 (25.6)	2 (0.9)	29 (13.2)	0 (0.0)	219 (100)	$\chi^2=21.30,$ df=8, p=.006**	
	201-300만원	61 (48.0)	4 (3.1)	43 (33.9)	4 (3.1)	15 (11.8)	0 (0.0)	127 (100)		
	301만원 이상	30 (30.6)	9 (9.2)	36 (36.7)	3 (3.1)	20 (20.4)	0 (0.0)	98 (100)		
	10만원 이하	106 (50.5)	10 (4.8)	62 (29.5)	4 (1.9)	28 (13.3)	0 (0.0)	210 (100)		$\chi^2=18.35,$ df=8, p=.019*
	11-20만원	71 (56.3)	6 (4.8)	35 (27.8)	2 (1.6)	12 (9.5)	0 (0.0)	126 (100)		
21만원 이상	34 (31.8)	9 (8.4)	37 (34.6)	3 (2.8)	24 (22.4)	0 (0.0)	107 (100)			

* p<0.05, ** p<0.01, *** p<0.001

5.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 실태

1)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안면미용성형 장소

선호하는 안면미용성형 장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9>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피부과(56.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성형외과(40.5%), 종합병원(2.5%), 준종합병원(0.5%), 산부인과(0.5%)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성형외과(52.4%), 피부과(47.6%), 30~39세의 경우 피부과(57.0%), 성형외과(37.4%), 종합병원이(5.6%), 40~49세의 경우 피부과(69.0%), 성형외과(28.3%), 종합병원(1.8%), 50세 이상의 경우 피부과(50.4%), 성형외과(44.3%), 종합병원(2.6%) 순으로 나타났다 ($p<.01$).

<표 19> 조사대상자가 선호하는 안면미용성형 장소

구성	성형	피부과	종합	준종합	산부	합계		
	외과		병원	병원	인과			
	(%)	(%)	(%)	(%)	(%)	(%)		
전체	178(40.5)	247(56.1)	11(2.5)	2(0.5)	2(0.5)	440(100)		
연령	29세 이하	55(52.4)	50(47.6)	0(0.0)	0(0.0)	0(0.0)	105(100)	$\chi^2=28.38,$ df=12, p=.005**
	30-39세	40(37.4)	61(57.0)	6(5.6)	0(0.0)	0(0.0)	107(100)	
	40-49세	32(28.3)	78(69.0)	2(1.8)	0(0.0)	1(0.9)	113(100)	
	50세 이상	51(44.3)	58(50.4)	3(2.6)	2(1.7)	1(0.9)	115(100)	
최종 학력	고졸	45(38.1)	66(55.9)	3(2.5)	2(1.7)	2(1.7)	118(100)	$\chi^2=15.00,$ df=16, p=.524
	전문대학졸	45(43.3)	58(55.8)	1(1.0)	0(0.0)	0(0.0)	104(100)	
	대학교졸	66(40.0)	92(55.8)	7(4.2)	0(0.0)	0(0.0)	165(100)	
	대학원수료이상	14(41.2)	20(58.8)	0(0.0)	0(0.0)	0(0.0)	34(100)	
기타	4(44.4)	5(55.6)	0(0.0)	0(0.0)	0(0.0)	9(100)		
결혼 여부	미혼	69(46.9)	74(50.3)	4(2.7)	0(0.0)	0(0.0)	147(100)	$\chi^2=9.14,$ df=8, p=.330
	기혼	102(37.1)	163(59.3)	6(2.2)	2(0.7)	2(0.7)	275(100)	
	기타	3(21.4)	10(71.4)	1(7.1)	0(0.0)	0(0.0)	14(100)	
직업	학생	11(45.8)	13(54.2)	0(0.0)	0(0.0)	0(0.0)	24(100)	$\chi^2=20.64,$ df=20, p=.418
	회사원	30(41.1)	41(56.2)	2(2.7)	0(0.0)	0(0.0)	73(100)	
	전문직	47(46.1)	51(50.0)	3(2.9)	1(1.0)	0(0.0)	102(100)	
	서비스직	11(26.2)	27(64.3)	3(7.1)	0(0.0)	1(2.4)	42(100)	
	자영업	21(46.7)	22(48.9)	1(2.2)	0(0.0)	1(2.2)	45(100)	
	전업주부	57(37.7)	91(60.3)	2(1.3)	1(0.7)	0(0.0)	151(100)	
월 소득	200만원이하	97(44.9)	114(52.8)	4(1.9)	1(0.5)	0(0.0)	216(100)	$\chi^2=10.98,$ df=8, p=.202
	201-300만원	49(38.6)	71(55.9)	6(4.7)	0(0.0)	1(0.8)	127(100)	
	301만원이상	32(33.0)	62(63.9)	1(1.0)	1(1.0)	1(1.0)	97(100)	
안면 미용 성형 비용	10만원이하	81(39.1)	118(57.0)	6(2.9)	1(0.5)	1(0.5)	207(100)	$\chi^2=2.68,$ df=8, p=.952
	11-20만원	54(42.9)	68(54.0)	3(2.4)	0(0.0)	1(0.8)	126(100)	
	21만원이상	42(39.6)	61(57.5)	2(1.9)	1(0.9)	0(0.0)	106(100)	

** p<0.01

2)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을 선호 하는 이유

안면미용성형 선호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0>와 같이 전체적으로 젊음유지·노화방지(38.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피부고민해결(31.6%), 외모콤플렉스 해소(11.5%), 의료적 빠른효과(8.4%), 선호하지 않음(8.4%),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1.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3.3%), 의료적 빠른효과(13.3%), 외모콤플렉스 해소(26.7%), 30~39세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4.6%), 피부고민해결(34.6%), 의료적 빠른효과(13.1%), 외모콤플렉스 해소(13.1%), 40~49세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51.3%), 피부고민해결(30.1%), 의료적 빠른효과(6.2%), 50세 이상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47.5%), 피부고민해결(28.8%), 선호하지 않음(16.9%)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1.1%), 외모콤플렉스 해소(23.6%), 의료적 빠른효과(12.8%), 기혼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45.8%), 피부고민해결(32.9%), 선호하지 않음(9.4%), 기타 (독신, 이혼 등)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5.7%), 선호하지 않음(28.6%), 의료적 빠른효과(21.4%)로 나타났다($p < 0.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외모콤플렉스 해소(41.7%), 젊음유지·노화방지(25.0%), 피부고민해결(25.0%), 회사원의 경우 피부고민해결(40.5%), 젊음유지·노화방지(25.7%), 외모콤플렉스 해소(14.9%), 전문직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7.3%), 피부고민해결(22.5%), 의료적 빠른 효과(16.7%), 서비스직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1.0%), 피부고민해결(31.0%), 외모콤플렉스 해소(14.3%), 자영업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7.0%), 피부고민해결(34.8%), 선호하지 않음(15.2%), 전업주부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50.0%), 피부고민해결(32.9%), 선호하지 않음(9.2%)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월소득에서 200만원이하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33.3%), 피부고민해결(30.6%), 외모콤플렉스 해소(15.1%), 201~300만

원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40.9%), 피부고민해결(26.8%), 의료적 빠른 효과(11.8%), 301만원이상의 경우 젊음유지·노화방지(46.4%), 피부고민해결(40.2%), 의료적 빠른효과(6.2%) 순으로 나타났다($p<.01$).

<표 20>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을 선호 하는 이유

구성	젊음유 자노화 방지	피부 고민 해결	의료적 빠른 효과	외모콤 플렉스 해소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주위의 권유	선호 하지 않음	합계		
	(%)	(%)	(%)	(%)	(%)	(%)	(%)	(%)		
연령	전체	170 (38.4)	140 (31.6)	37 (8.4)	51 (11.5)	8 (1.8)	0 (0.0)	37 (8.4)	443 (100)	$\chi^2=83.98,$ df=15, p=.000***
	29세	19	35	14	28	4	0	5	105	
	이하	(18.1)	(33.3)	(13.3)	(26.7)	(3.8)	(0.0)	(4.8)	(100)	
	30-	37	37	14	14	1	0	4	107	
	39세	(34.6)	(34.6)	(13.1)	(13.1)	(0.9)	(0.0)	(3.7)	(100)	
	40-	58	34	7	5	1	0	8	113	
	49세	(51.3)	(30.1)	(6.2)	(4.4)	(0.9)	(0.0)	(7.1)	(100)	
	50세	56	34	2	4	2	0	20	118	
이상	(47.5)	(28.8)	(1.7)	(3.4)	(1.7)	(0.0)	(16.9)	(100)		
최종 학력	고졸	48 (40.7)	37 (31.4)	3 (2.5)	14 (11.9)	1 (0.8)	0 (0.0)	15 (12.7)	118 (100)	$\chi^2=26.94,$ df=20, p=.137
	전문	42	30	8	13	4	0	8	105	
	대학졸	(40.0)	(28.6)	(7.6)	(12.4)	(3.8)	(0.0)	(7.6)	(100)	
	대학	55	55	21	21	2	0	11	165	
	교졸	(33.3)	(33.3)	(12.7)	(12.7)	(1.2)	(0.0)	(6.7)	(100)	
	대학원	14	13	4	2	0	0	1	34	
	수료이상	(41.2)	(38.2)	(11.8)	(5.9)	(0.0)	(0.0)	(2.9)	(100)	
기타	5 (45.5)	2 (18.2)	0 (0.0)	1 (9.1)	1 (9.1)	0 (0.0)	2 (18.2)	11 (100)		
결혼 여부	미혼	36 (24.3)	46 (31.1)	19 (12.8)	35 (23.6)	5 (3.4)	0 (0.0)	7 (4.7)	148 (100)	$\chi^2=64.08,$ df=10, p=.000***
	기혼	127 (45.8)	91 (32.9)	14 (5.1)	16 (5.8)	3 (1.1)	0 (0.0)	26 (9.4)	277 (100)	
	기타	5 (35.7)	2 (14.3)	3 (21.4)	0 (0.0)	0 (0.0)	0 (0.0)	4 (28.6)	14 (100)	
직업	학생	6 (25.0)	6 (25.0)	1 (4.2)	10 (41.7)	1 (4.2)	0 (0.0)	0 (0.0)	24 (100)	$\chi^2=69.44,$ df=25, p=.000***
	회사	19	30	9	11	1	0	4	74	
	원	(25.7)	(40.5)	(12.2)	(14.9)	(1.4)	(0.0)	(5.4)	(100)	
	전문	38	23	17	14	3	0	7	102	
	직	(37.3)	(22.5)	(16.7)	(13.7)	(2.9)	(0.0)	(6.9)	(100)	
	서비	13	13	4	6	1	0	5	42	
스직	(31.0)	(31.0)	(9.5)	(14.3)	(2.4)	(0.0)	(11.9)	(100)		

	자영	17	16	2	4	0	0	7	46	
	업	(37.0)	(34.8)	(4.3)	(8.7)	(0.0)	(0.0)	(15.2)	(100)	
	전업	76	50	4	6	2	0	14	152	
	주부	(50.0)	(32.9)	(2.6)	(3.9)	(1.3)	(0.0)	(9.2)	(100)	
월소득	200	73	67	16	33	8	0	22	219	$\chi^2=29.28,$ df=10, p=.001**
	만원	(33.3)	(30.6)	(7.3)	(15.1)	(3.7)	(0.0)	(10.0)	(100)	
	이하	52	34	15	13	0	0	13	127	
	201-300	(40.9)	(26.8)	(11.8)	(10.2)	(0.0)	(0.0)	(10.2)	(100)	
	301	45	39	6	5	0	0	2	97	
	만원	(46.4)	(40.2)	(6.2)	(5.2)	(0.0)	(0.0)	(2.1)	(100)	
	이상	77	60	15	29	6	0	22	209	
안면	이하	(36.8)	(28.7)	(7.2)	(13.9)	(2.9)	(0.0)	(10.5)	(100)	$\chi^2=12.44,$ df=10, p=.256
비용	11-20	47	42	13	11	1	0	12	126	
성형	만원	(37.3)	(33.3)	(10.3)	(8.7)	(0.8)	(0.0)	(9.5)	(100)	
비용	21만원	45	38	9	11	1	0	3	107	
	이상	(42.1)	(35.5)	(8.4)	(10.3)	(0.9)	(0.0)	(2.8)	(100)	

*** p<0.001 , **p<0.01

3) 조사대상자가 시술한 안면미용성형의 종류

안면미용성형 시술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1>와 같이 전체적으로 하지않음(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레이저(31.4%), 보톡스(21.8%), 필러(13.4%), 박피(6.1%), 흉터제거(3.9%), 지방이식(2.5%), 콜라겐주사(1.4%), 안면거상술(0.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하지않음(45.7%), 보톡스(33.3%), 레이저(26.7%), 30~39세의 경우 하지않음(37.1%), 보톡스(33.3%), 레이저(30.5%), 40~49세의 경우 하지않음(50.9%), 레이저(31.6%), 필러(12.3%), 50세 이상의 경우 하지않음(43.1%), 레이저(36.2%), 필러(13.8%) 순으로 나타났다($p < .05$). 최종학력에서 고졸의 경우 하지않음(50.9%), 레이저(28.4%), 필러(14.7%), 전문대학졸의 경우 하지않음(39.0%), 레이저(36.2%), 보톡스(30.5%), 대학교졸의 경우 하지않음(42.7%), 레이저(32.9%), 보톡스(24.4%), 대학원수료이상의 경우 하지않음(44.1%), 보톡스(26.5%), 레이저(20.6%), 기타의 경우 하지않음(45.5%), 레이저(18.2%), 지방이식(18.2%) 순으로 나타났다($p < .01$).

<표 21> 조사대상자가 시술한 안면미용성형의 종류

구성	보톡스	필러	레이저	박피	지방이식	안면거상술	콜라겐주사	홍터제거	하지않음	합계			
	(%)	(%)	(%)	(%)	(%)	(%)	(%)	(%)	(%)	(%)			
연령	전체	96 (21.8)	59 (13.4)	138 (31.4)	27 (6.1)	11 (2.5)	3 (0.7)	6 (1.4)	17 (3.9)	195 (44.3)	440 (100)	$\chi^2=23.75,$ df=12, p=.002*	
	29세 이하	35 (33.3)	14 (13.3)	28 (26.7)	3 (2.9)	0 (0.0)	0 (0.0)	0 (0.0)	7 (6.7)	48 (45.7)	105 (100)		
	30-39세	35 (33.3)	15 (14.3)	32 (30.5)	8 (7.6)	5 (4.8)	1 (1.0)	5 (4.8)	6 (5.7)	39 (37.1)	105 (100)		
	40-49세	13 (11.4)	14 (12.3)	36 (31.6)	7 (6.1)	3 (2.6)	0 (0.0)	1 (0.9)	2 (1.8)	58 (50.9)	114 (100)		
	50세 이상	13 (11.2)	16 (13.8)	42 (36.2)	9 (7.8)	3 (2.6)	2 (1.7)	0 (0.0)	2 (1.7)	50 (43.1)	116 (100)		
	고졸	15 (12.9)	17 (14.7)	33 (28.4)	8 (6.9)	3 (2.6)	0 (0.0)	0 (0.0)	3 (2.6)	59 (50.9)	116 (100)		$\chi^2=39.92,$ df=16, p=.001**
	전문대학졸	32 (30.5)	17 (16.2)	38 (36.2)	5 (4.8)	2 (1.9)	1 (1.0)	0 (0.0)	3 (2.9)	41 (39.0)	105 (100)		
	대학교졸	40 (24.4)	21 (12.8)	54 (32.9)	11 (6.7)	2 (1.2)	1 (0.6)	4 (2.4)	9 (5.5)	70 (42.7)	164 (100)		
대학원수료이상	9 (26.5)	4 (11.8)	7 (20.6)	2 (5.9)	2 (5.9)	0 (0.0)	1 (2.9)	2 (5.9)	15 (44.1)	34 (100)			
기타	0 (0.0)	0 (0.0)	2 (18.2)	1 (9.1)	2 (18.2)	1 (9.1)	0 (0.0)	0 (0.0)	5 (45.5)	11 (100)			
미혼	49 (33.1)	19 (12.8)	35 (23.6)	7 (4.7)	2 (1.4)	0 (0.0)	3 (2.0)	9 (6.1)	70 (47.3)	148 (100)	$\chi^2=10.58,$ df=8, p=.227		
기혼	45 (16.4)	36 (13.1)	96 (34.9)	19 (6.9)	9 (3.3)	3 (1.1)	3 (1.1)	7 (2.5)	118 (42.9)	275 (100)			
기타	1 (7.7)	2 (15.4)	6 (46.2)	1 (7.7)	0 (0.0)	0 (0.0)	0 (0.0)	1 (7.7)	6 (46.2)	13 (100)			
직업	학생	4 (16.7)	0 (0.0)	4 (16.7)	0 (0.0)	0 (0.0)	0 (0.0)	0 (0.0)	1 (4.2)	17 (70.8)	24 (100)	$\chi^2=25.61$ df=20, p=.179	
	회사원	18 (24.7)	12 (16.4)	25 (34.2)	3 (4.1)	2 (2.7)	1 (1.4)	1 (1.4)	4 (5.5)	31 (42.5)	73 (100)		
	전문직	36 (35.3)	15 (14.7)	31 (30.4)	11 (10.8)	1 (1.0)	0 (0.0)	0 (0.0)	8 (7.8)	35 (34.3)	102 (100)		
	서비스직	15 (35.7)	3 (7.1)	6 (14.3)	4 (9.5)	3 (7.1)	0 (0.0)	2 (4.8)	2 (4.8)	19 (45.2)	42 (100)		
	자영업	8 (17.8)	11 (24.4)	14 (31.1)	4 (8.9)	3 (6.7)	1 (2.2)	2 (4.4)	1 (2.2)	18 (40.0)	45 (100)		

	전업주부	15 (9.9)	18 (11.9)	57 (37.7)	5 (3.3)	2 (1.3)	1 (0.7)	1 (0.7)	1 (0.7)	73 (48.3)	151 (100)	
월소득	200만원 이하	46 (21.0)	21 (9.6)	53 (24.2)	13 (5.9)	3 (1.4)	2 (0.9)	1 (0.5)	7 (3.2)	111 (50.7)	219 (100)	$\chi^2=8.49$ df=8, p=.386
	201-300만원	33 (25.4)	18 (14.4)	43 (34.4)	8 (6.4)	4 (3.2)	1 (0.8)	4 (3.2)	4 (3.2)	46 (36.8)	125 (100)	
	301만원 이상	17 (17.7)	20 (20.8)	42 (43.8)	6 (6.3)	4 (4.2)	0 (0.0)	1 (1.0)	6 (6.3)	38 (39.6)	96 (100)	
	10만원 이하	43 (20.6)	19 (9.1)	57 (27.3)	14 (6.7)	2 (1.0)	3 (1.4)	2 (1.0)	7 (3.3)	99 (47.4)	209 (100)	
안면 미용성형 비용	11-20만원	28 (22.6)	20 (16.1)	45 (36.3)	7 (5.6)	2 (1.6)	0 (0.0)	3 (2.4)	2 (1.6)	53 (42.7)	124 (100)	
21만원 이상	25 (23.6)	19 (17.9)	36 (34.0)	6 (5.7)	7 (6.6)	0 (0.0)	1 (0.9)	8 (7.5)	43 (40.6)	106 (100)		

* $p < 0.05$, ** $p < 0.01$

4)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에 관한 정보 출처

안면미용성형 정보 출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이 전체적으로 지인의 소개(37.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대중매체(25.5%), 신문·잡지(12.5%), 인터넷(9.8%), 피부관리실(2.7%), 전단지(1.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인터넷(40.4%), 지인의 소개(36.5%), 대중매체(13.5%), 30~39세의 경우 지인의 소개(29.0%), 대중매체(29.0%), 인터넷(23.4%), 40~49세의 경우 지인의 소개(42.5%), 대중매체(25.7%), 신문·잡지(16.8%), 50세 이상의 경우 지인의 소개(42.6%), 대중매체(33.0%), 신문·잡지(10.4%)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인터넷(35.4%), 지인의 소개(32.0%), 대중매체(20.4%), 기혼의 경우 지인의 소개(41.5%), 대중매체(27.6%), 신문·잡지(13.5%),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대중매체(35.7%), 지인의 소개(28.6%), 인터넷(21.4%)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직업에서 학생의 경우 인터넷(37.5%), 지인의 소개(29.2%), 대중매체(25.0%), 회사원의 경우 인터넷(32.9%), 지인의 소개(28.8%), 대중매체(20.5%), 전문직의 경우 지인의 소개(42.2%), 인터넷(30.4%), 대중매체(19.6%), 서비스직의 경우 지인의 소개(50.0%), 인터넷(21.4%), 신문·잡지(16.7%), 자영업의 경우 대중매체(32.6%), 지인의 소개(30.4%), 신문·잡지(15.2%), 전업주부의 경우 지인의 소개(40.3%), 대중매체(34.2%), 신문·잡지(14.1%)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표 22>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에 관한 정보 출처

구성	대중	신문	인터넷	지인	전단지	피부	합계			
	매체	잡지		소개		관리실				
	(%)	(%)	(%)	(%)	(%)	(%)	(%)			
연령	전체	112 (25.5)	55 (12.5)	87 (19.8)	166 (37.8)	7 (1.6)	12 (2.7)	439 (100)	$\chi^2=66.43,$ df=15, p=.000***	
	29세 이하	14 (13.5)	9 (8.7)	42 (40.4)	38 (36.5)	1 (1.0)	0 (0.0)	104 (100)		
	30 - 39세	31 (29.0)	15 (14.0)	25 (23.4)	31 (29.0)	4 (3.7)	1 (0.9)	107 (100)		
	40 - 49세	29 (25.7)	19 (16.8)	12 (10.6)	48 (42.5)	0 (0.0)	5 (4.4)	113 (100)		
	50세 이상	38 (33.0)	12 (10.4)	8 (7.0)	49 (42.6)	2 (1.7)	6 (5.2)	115 (100)		
	고졸	31 (26.7)	16 (13.8)	18 (15.5)	43 (37.1)	2 (1.7)	6 (5.2)	116 (100)		$\chi^2=25.86,$ df=20, p=.170
	전문대	21 (20.2)	11 (10.6)	19 (18.3)	46 (44.2)	3 (2.9)	4 (3.8)	104 (100)		
	대학	40 (24.2)	20 (12.1)	44 (26.7)	59 (35.8)	1 (0.6)	1 (0.6)	165 (100)		
교졸	13 (39.4)	5 (15.2)	5 (15.2)	9 (27.3)	1 (3.0)	0 (0.0)	33 (100)			
대학원	4 (36.4)	2 (18.2)	0 (0.0)	4 (36.4)	0 (0.0)	1 (9.1)	11 (100)			
수료	30 (20.4)	16 (10.9)	52 (35.4)	47 (32.0)	2 (1.4)	0 (0.0)	147 (100)	$\chi^2=41.31,$ df=10, p=.000***		
이상	76 (27.6)	37 (13.5)	31 (11.3)	114 (41.5)	5 (1.8)	12 (4.4)	275 (100)			
기타	5 (35.7)	2 (14.3)	3 (21.4)	4 (28.6)	0 (0.0)	0 (0.0)	14 (100)			
직업	학생	6 (25.0)	2 (8.3)	9 (37.5)	7 (29.2)	0 (0.0)	0 (0.0)	24 (100)	$\chi^2=67.06,$ df=25, p=.000***	
	회사	15 (20.5)	11 (15.1)	24 (32.9)	21 (28.8)	1 (1.4)	1 (1.4)	73 (100)		
	전문	20 (19.6)	6 (5.9)	31 (30.4)	43 (42.2)	2 (2.0)	0 (0.0)	102 (100)		
	직	3 (7.1)	7 (16.7)	9 (21.4)	21 (50.0)	1 (2.4)	1 (2.4)	42 (100)		
	서비									
	스직									

	자영	15	7	5	14	1	4	46	
	업	(32.6)	(15.2)	(10.9)	(30.4)	(2.2)	(8.7)	(100)	
	전업	51	21	9	60	2	6	149	
	주부	(34.2)	(14.1)	(6.0)	(40.3)	(1.3)	(4.0)	(100)	
월소득	200만원 이하	54	29	47	74	4	9	217	$\chi^2=14.02,$ df=10, p=.172
	201-300만원	(24.9)	(13.4)	(21.7)	(34.1)	(1.8)	(4.1)	(100)	
	301-400만원	27	12	29	55	2	1	126	
	(21.4)	(9.5)	(23.0)	(43.7)	(1.6)	(0.8)	(100)		
	401만원 이상	31	14	11	37	1	2	96	
	(32.3)	(14.6)	(11.5)	(38.5)	(1.0)	(2.1)	(100)		
안면비용	10만원 이하	53	20	42	81	3	9	208	$\chi^2=13.57,$ df=10, p=.193
	11-20만원	(25.5)	(9.6)	(20.2)	(38.9)	(1.4)	(4.3)	(100)	
	21-30만원	29	17	20	53	3	3	125	
	(23.2)	(13.6)	(16.0)	(42.4)	(2.4)	(2.4)	(100)		
31-40만원	30	18	25	32	1	0	106		
	(28.3)	(17.0)	(23.6)	(30.2)	(0.9)	(0.0)	(100)		

*** p<0.001

5)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 장소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안면미용성형 장소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3>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문성(51.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 이용가격(17.7%), 인지도(13.2%), 신뢰도(11.8%), 시설과 환경(3.6%), 짧은 대기시간(0.7%), 교통의 편리성(0.7%), 다양한 프로그램(0.5%), 직원의 친절함(0.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전문성(44.8%), 이용 가격(21.9%), 인지도(14.3%), 30~39세의 경우 전문성(52.8%), 이용가격(16.0%), 인지도(11.3%), 시설과 환경(11.3%), 40~49세의 경우 전문성(50.9%), 이용가격(23.7%), 인지도(13.2%), 50세 이상의 경우 전문성(58.6%), 인지도(13.8%), 신뢰도(13.8%) 순으로 나타났다($p<.001$). 피부미용 비용에서 10만원이하의 경우 전문성(48.6%), 이용가격(22.6%), 신뢰도(14.4%), 11~20만원의 경우 전문성(56.8%), 이용가격(17.6%), 인지도(13.6%), 21만원이상의 경우 전문성(53.3%), 인지도(18.7%), 신뢰도(11.2%) 순으로 나타났다($p<.05$).

<표23>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 장소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

구성		인지	전문	이용	시설	직원	다양	신뢰	짧은	교통	합계	
		도	성	가격	환경	친절	한		대기			
		(%)	(%)	(%)	(%)	(%)	프로그	(%)	시간	(%)	(%)	(%)
연령	전체	58 (13.2)	229 (51.9)	78 (17.7)	16 (3.6)	0 (0.0)	2 (0.5)	52 (11.8)	3 (0.7)	3 (0.7)	441 (100)	$\chi^2=51.25$, df=21, p=.000***
	29세	15 (14.3)	47 (44.8)	23 (21.9)	4 (3.8)	0 (0.0)	0 (0.0)	14 (13.3)	0 (0.0)	2 (1.9)	105 (100)	
	이하	12 (11.3)	56 (52.8)	17 (16.0)	12 (11.3)	0 (0.0)	0 (0.0)	8 (7.5)	1 (0.9)	0 (0.0)	106 (100)	
	30-	15 (13.2)	58 (50.9)	27 (23.7)	0 (0.0)	0 (0.0)	0 (0.0)	14 (12.3)	0 (0.0)	0 (0.0)	114 (100)	
	39세	16 (13.8)	68 (58.6)	11 (9.5)	0 (0.0)	0 (0.0)	2 (1.7)	16 (13.8)	2 (1.7)	1 (0.9)	116 (100)	
	40-	16 (13.8)	68 (58.6)	11 (9.5)	0 (0.0)	0 (0.0)	2 (1.7)	16 (13.8)	2 (1.7)	1 (0.9)	116 (100)	
	49세	16 (13.8)	68 (58.6)	11 (9.5)	0 (0.0)	0 (0.0)	2 (1.7)	16 (13.8)	2 (1.7)	1 (0.9)	116 (100)	
	50세	16 (13.8)	68 (58.6)	11 (9.5)	0 (0.0)	0 (0.0)	2 (1.7)	16 (13.8)	2 (1.7)	1 (0.9)	116 (100)	
최종 학력	이상	16 (13.7)	57 (48.7)	23 (19.7)	2 (1.7)	0 (0.0)	2 (1.7)	13 (11.1)	2 (1.7)	2 (1.7)	117 (100)	$\chi^2=37.33$, df=28, p=.112
	고졸	8 (7.6)	55 (52.4)	25 (23.8)	2 (1.9)	0 (0.0)	0 (0.0)	13 (12.4)	1 (1.0)	1 (1.0)	105 (100)	
	전문대	30 (18.1)	85 (51.2)	25 (15.1)	8 (4.8)	0 (0.0)	0 (0.0)	18 (10.8)	0 (0.0)	0 (0.0)	166 (100)	
	학졸	4 (11.8)	21 (61.8)	1 (2.9)	4 (11.8)	0 (0.0)	0 (0.0)	4 (11.8)	0 (0.0)	0 (0.0)	34 (100)	
	대학	0 (0.0)	6 (54.5)	3 (27.3)	0 (0.0)	0 (0.0)	0 (0.0)	2 (18.2)	0 (0.0)	0 (0.0)	11 (100)	
	교졸	0 (0.0)	6 (54.5)	3 (27.3)	0 (0.0)	0 (0.0)	0 (0.0)	2 (18.2)	0 (0.0)	0 (0.0)	11 (100)	
결혼 여부	대학원	23 (15.5)	69 (46.6)	28 (18.9)	9 (6.1)	0 (0.0)	0 (0.0)	17 (11.5)	0 (0.0)	2 (1.4)	148 (100)	$\chi^2=15.71$, df=14, p=.331
	수료	30 (10.9)	151 (54.9)	48 (17.5)	7 (2.5)	0 (0.0)	2 (0.7)	33 (12.0)	3 (1.1)	1 (0.4)	275 (100)	
	이상	4 (28.6)	8 (57.1)	2 (14.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00)	
직업	기타	3 (12.5)	12 (50.0)	2 (8.3)	2 (8.3)	0 (0.0)	0 (0.0)	4 (16.7)	0 (0.0)	1 (4.2)	24 (100)	$\chi^2=41.15$, df=35, p=.219
	학생	9 (12.5)	40 (55.6)	16 (22.2)	1 (1.4)	0 (0.0)	0 (0.0)	5 (6.9)	1 (1.4)	0 (0.0)	72 (100)	
	회사	13 (12.7)	54 (52.9)	18 (17.6)	6 (5.9)	0 (0.0)	0 (0.0)	11 (10.8)	0 (0.0)	0 (0.0)	102 (100)	

	서비	7	16	9	4	0	0	5	0	1	42	
	스직	(16.7)	(38.1)	(21.4)	(9.5)	(0.0)	(0.0)	(11.9)	(0.0)	(2.4)	(100)	
	자영업	8	29	4	0	0	1	3	1	0	46	
		(17.4)	(63.0)	(8.7)	(0.0)	(0.0)	(2.2)	(6.5)	(2.2)	(0.0)	(100)	
	전업	18	77	28	2	0	1	24	1	1	152	
	주부	(11.8)	(50.7)	(18.4)	(1.3)	(0.0)	(0.7)	(15.8)	(0.7)	(0.7)	(100)	
	200	28	102	47	6	0	1	29	1	3	217	
	만원	(12.9)	(47.0)	(21.7)	(2.8)	(0.0)	(0.5)	(13.4)	(0.5)	(1.4)	(100)	
	이하											
월소득	201-	13	70	25	4	0	1	13	1	0	127	$\chi^2=21.22$ df=14, p=.096
	300만	(10.2)	(55.1)	(19.7)	(3.1)	(0.0)	(0.8)	(10.2)	(0.8)	(0.0)	(100)	
	원											
	301	17	57	6	6	0	0	10	1	0	97	
	만원	(17.5)	(58.8)	(6.2)	(6.2)	(0.0)	(0.0)	(10.3)	(1.0)	(0.0)	(100)	
	이상											
안면	10만	20	101	47	5	0	1	30	1	3	208	$\chi^2=27.$ 17, df=14, p=.018*
	원	(9.6)	(48.6)	(22.6)	(2.4)	(0.0)	(0.5)	(14.4)	(0.5)	(1.4)	(100)	
	이하											
	11-2	17	71	22	4	0	1	10	0	0	125	
미용	0	(13.6)	(56.8)	(17.6)	(3.2)	(0.0)	(0.8)	(8.0)	(0.0)	(0.0)	(100)	
성형	21만	20	57	9	7	0	0	12	2	0	107	
비용	원	(18.7)	(53.3)	(8.4)	(6.5)	(0.0)	(0.0)	(11.2)	(1.9)	(0.0)	(100)	
	이상											

* $p < 0.05$, *** $p < 0.001$

6)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 결정시 장애가 되는 요인

안면미용성형 결정시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4>와 같이 전체적으로 부작용걱정(46.6%), 비용(35.7%), 외모의 심한 변화(8.4%), 수술시 통증 두려움(5.7%), 수술 후 주변사람 인식(3.6%),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부작용걱정(58.1%), 비용(25.7%), 수술시 통증 두려움(7.6%), 30~39세의 경우 부작용걱정(49.1%), 비용(31.1%), 수술시 통증 두려움(7.5%), 40~49세의 경우 비용(40.4%), 부작용걱정(38.6%), 외모의 심한 변화(13.2%), 50세 이상의 경우 비용(44.4%), 부작용걱정(41.9%), 외모의 심한 변화(8.5%) 순으로 나타났다($p < .05$). 최종학력에서 고졸의 경우 비용(45.8%), 부작용걱정(39.8%), 외모의 심한 변화(8.5%), 전문대학졸의 경우 비용(47.1%), 부작용걱정(35.6%), 수술시 통증 두려움(7.7%), 외모의 심한 변화(7.7%), 대학교졸의 경우 부작용걱정(53.0%), 비용(27.7%), 외모의 심한 변화(9.0%), 대학원수료이상의 경우 부작용걱정(64.7%), 비용(11.8%), 수술 후 주변사람 인식(11.8%), 기타의 경우 부작용걱정(72.7%), 비용(9.1%), 수술 후 주변사람 인식(9.1%), 외모의 심한 변화(9.1%)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결혼여부에서 미혼의 경우 부작용걱정(53.4%), 비용(29.1%), 수술시 통증 두려움(7.4%), 기혼의 경우 부작용걱정(42.6%), 비용(39.0%), 외모의 심한 변화(9.7%), 기타(독신, 이혼 등)의 경우 부작용걱정(57.1%), 비용(42.9%) 순으로 나타났다($p > .05$).

<표 24> 조사대상자가 안면미용성형 결정 시 장애가 되는 요인

구성	비용	부작용 걱정	수술시	수술 후	외모의	합계		
			통증 두려움	주변사 람 인식	심한 변화			
	(%)	(%)	(%)	(%)	(%)	(%)		
연령	전체	158 (35.7)	206 (46.6)	25 (5.7)	16 (3.6)	37 (8.4)	442 (100)	$\chi^2=23.75,$ $df=12,$ $p=.022^*$
	29세 이하	27 (25.7)	61 (58.1)	8 (7.6)	3 (2.9)	6 (5.7)	105 (100)	
	30-39세	33 (31.1)	52 (49.1)	8 (7.5)	7 (6.6)	6 (5.7)	106 (100)	
	40-49세	46 (40.4)	44 (38.6)	6 (5.3)	3 (2.6)	15 (13.2)	114 (100)	
	50세	52 (44.4)	49 (41.9)	3 (2.6)	3 (2.6)	10 (8.5)	117 (100)	
	이상							
최종 학력	고졸	54 (45.8)	47 (39.8)	3 (2.5)	4 (3.4)	10 (8.5)	118 (100)	$\chi^2=39.92,$ $df=16,$ $p=.001^{**}$
	전문대	49 (47.1)	37 (35.6)	8 (7.7)	2 (1.9)	8 (7.7)	104 (100)	
	학졸	46 (27.7)	88 (53.0)	12 (7.2)	5 (3.0)	15 (9.0)	166 (100)	
	대학교졸	4 (11.8)	22 (64.7)	1 (2.9)	4 (11.8)	3 (8.8)	34 (100)	
	대학원수 료이상	1 (9.1)	8 (72.7)	0 (0.0)	1 (9.1)	1 (9.1)	11 (100)	
	기타							
결혼 여부	미혼	43 (29.1)	79 (53.4)	11 (7.4)	5 (3.4)	10 (6.8)	148 (100)	$\chi^2=10.58,$ $df=8,$ $p=.227$
	기혼	108 (39.0)	118 (42.6)	13 (4.7)	11 (4.0)	27 (9.7)	277 (100)	
	기타	6 (42.9)	8 (57.1)	0 (0.0)	0 (0.0)	0 (0.0)	14 (100)	
직업	학생	10 (41.7)	13 (54.2)	1 (4.2)	0 (0.0)	0 (0.0)	24 (100)	$\chi^2=25.61,$ $df=20,$ $p=.179$
	회사원	27 (36.5)	31 (41.9)	5 (6.8)	1 (1.4)	10 (13.5)	74 (100)	
	전문직	25 (24.5)	55 (53.9)	9 (8.8)	7 (6.9)	6 (5.9)	102 (100)	
	서비스직	16	19	2	1	4	42	

		(38.1)	(45.2)	(4.8)	(2.4)	(9.5)	(100)	
	자영업	14	25	2	0	5	46	
		(30.4)	(54.3)	(4.3)	(0.0)	(10.9)	(100)	
	전업주부	65	63	6	5	12	151	
		(43.0)	(41.7)	(4.0)	(3.3)	(7.9)	(100)	
	200만원	83	94	14	6	20	217	
월소득	이하	(38.2)	(43.3)	(6.5)	(2.8)	(9.2)	(100)	$\chi^2=8.49,$ df=8, p=.386
	201-30만원	47	61	7	3	9	127	
	301만원	(37.0)	(48.0)	(5.5)	(2.4)	(7.1)	(100)	
	이상	(28.6)	(52.0)	(4.1)	(7.1)	(8.2)	(100)	
	10만원	83	94	12	6	14	209	
안면비용성형비용	이하	(39.7)	(45.0)	(5.7)	(2.9)	(6.7)	(100)	$\chi^2=15.46,$ df=8, p=.051
	11-20만원	50	50	8	3	14	125	
	21만원	(40.0)	(40.0)	(6.4)	(2.4)	(11.2)	(100)	
	이상	(23.4)	(57.0)	(4.7)	(6.5)	(8.4)	(100)	

* $p < 0.05$, ** $p < 0.01$

6.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만족도

1) 피부관리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피부관리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569$, $F=81.003$, $p<.001$)로 99.9% 신뢰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56.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부관리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beta=.128$, $p<.01$), 피부관리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beta=.53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25> 피부관리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409	.164		2.487	0.013		
피부관리 지식	.037	.030	.043	1.219	.223	.822	1.216
외모 개선	.123	.043	.128	2.872	.004**	.506	1.977
피부상태 개선	.092	.047	.092	1.966	.050	.455	2.196
타인의 긍정적 반응	.056	.044	.055	1.271	.204	.545	1.835
관리 후 공개 여부	.055	.030	.067	1.815	.070	.727	1.376
문제점 및 부작용	-.034	.029	-.037	-1.157	.248	.966	1.035
효과의 신뢰성	.550	.040	.539	13.683	.000***	.647	1.544

$R^2=.569$, $F=81.003$, $p=.000***$

* $p<0.05$, ** $p<0.01$, *** $p<0.001$

7. 조사대상자의 안면미용성형 만족도

1) 안면미용성형 만족요인이 안면미용성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면미용성형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은 ($R^2=.733$, $F=89.889$, $p<.001$)로 99.9% 신뢰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면미용성형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beta=.219$, $p<.001$),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beta=.124$, $p<.01$), 안면미용성형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 이다($\beta=.258$, $p<.001$), 안면미용성형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beta=.089$, $p<.05$),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beta=.37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beta=-.14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26>안면미용성형 만족요인이 안면미용성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표준화	t	유의 확률	공선성	
	계수	표준 오차	계수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379	.185		2.048	0.042		
안면미용성형 지식	-.032	.037	-.033	-0.868	.386	.783	1.276
외모개선	.205	.048	.219	4.270	.000***	.444	2.250
피부상태 개선	.114	.042	.124	2.717	.007**	.563	1.775
타인의 긍정적 반응	.283	.054	.258	5.194	.000***	.471	2.125
시술 후 공개 여부	.068	.029	.089	2.352	.020*	.813	1.229
문제점 및 부작용	-.143	.034	-.146	-4.148	.000***	.943	1.060
효과의 신뢰성	.371	.043	.378	8.695	.000***	.618	1.619

$R^2=.733$, $F=89.889$, $p=.000***$

*** $p<0.001$, ** $p<0.01$, * $p<0.05$

8. 조사대상자의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 만족도 상관관계

안면미용성형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사이에는 ($r=0.213$)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 사이에는 ($r=0.200$)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안면미용성형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사이에는 ($r=0.273$)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안면미용성형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사이에는 ($r=0.120$)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 사이에는 ($r=0.006$)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사이에는 ($r=0.168$)로 상관크기가 나타나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7>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													
2	.377**	1												
3	.338**	.657**	1											
4	.332**	.546**	.590**	1										
5	.257**	.322**	.408**	.462**	1									
6	-.009	-.039	-.103*	.002	.034	1								
7	.289**	.470**	.517**	.455**	.377**	-.118*	1							
8	.419**	.224**	.157*	.196**	.174**	.017	.157*	1						
9	.114	.263**	.196**	.155*	.153*	.110	.248**	.334**	1					
10	.101	.248**	.205**	.178**	.120	.108	.179**	.288**	.594**	1				
11	.153*	.292**	.149*	.187**	.120	.115	.251**	.376**	.648**	.579**	1			
12	.192**	.130*	.039	.064	.311**	.192**	.146*	.292**	.315**	.273**	.387**	1		
13	.127	.028	.006	.055	.068	.161*	.030	.079	-.088	.020	-.075	.078	1	
14	.016	.071	.054	.000	-.05	-.02	.231**	.210**	.550**	.460**	.488**	.190**	-.142*	1

*p<.05, **p<.01

1: 피부관리지식, 2: 외모개선(피부), 3: 피부상태개선, 4: 타인의긍정적반응(피부),
 5: 관리후 공개여부(피부), 6: 문제점,부작용(피부), 7: 효과신뢰성(피부), 8: 안면미용성
 형지식, 9: 외모개선(안면미용), 10: 피부상태개선(안면미용), 11: 타인의긍정적반응
 (안면미용), 12: 시술후공개여부, 13: 문제점,부작용(안면미용), 14: 효과신뢰성(안면
 미용)

V. 고찰

피부관리란 건조현상, 주름생성, 색소침착, 트러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말한다(김남연, 2010). 피부관리는 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수술 등과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것으로(최재민, 2012), 손을 이용한 관리, 과학적인 기구나 기계사용 및 개인의 피부타입별 전문 화장품 사용, 심리적인 내면 미용법, 식이요법 등이 있다(나현숙 등, 2010). 최근에는 피부 건강과 아름다움 유지를 위한 피부관리에 국한 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 영양·건강·비만관리 등의 예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김춘구, 2013).

미용성형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와 노력으로 미용을 위해 병원에서 시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변선주, 2011),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피부와 그 밑에 있는 근과 골격에 결손 또는 변형이 있을 때 그 형태는 물론이고 기능도 개선해 주는 외과의 한 분과이다(정명선, 2010).

미용성형으로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삶, 주위 사람들의 태도 변화 등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중독, 성형효과 미미, 성형 역효과 등이 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미용성형 수술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미리 고려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전현진 등, 2010).

미(美)는 만들어 지기도 하며, 또 미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외모나 육체에 대한 불만이나 열등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행하여지기 때문에 미용성형술이 존재하는 이유이다(김화숙, 2011).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습관은 음주의 경우 마시지 않는다(38.2%), 흡연의 경우 하지 않는다(93.3%)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지영(2013)의 여성의 식

습관이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음주를 하지 않는다(41.6%)와 흡연을 하지 않는다(84%)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운동빈도는 주2~3회(26.2%), 주1회(20.7%)가 다수를 차지했고, 수면시간은 평균 6.40 ± 1.28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김은수(2013)의 피부상태 관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운동빈도가 주 3회 미만(58.7%)이 다수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며, 안미숙(2011)의 안면피부상태의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수면시간이 6~7시간(42.2%)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피부유형은 연령에 있어, 20대의 경우 복합성(49.5%)이 40대(50.9%), 50대(49.2%), 30대(38.3%)는 건성으로 나타났다. 성미숙(2013)의 여성의 팩 사용 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해 연구에서 20대(32.8%)는 복합성, 30대(38.8%)와 40대(39.3%)는 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피부유형별 세안 방법 및 클렌저 사용법에 대해 연구한 정혜정(2013)의 연구결과 40대(38.5%)와 50대(3.8%)는 건성이 높게 나타났고 30대(50%)와 20대(30%)는 지성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에 있어서는 유사하였으나 30대 20대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김현주(2011)의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20대(36%)와 30대(34%)는 복합성, 40대(64%)와 50대(59%)는 건성이 높게 나타나 40대와 50대에 있어서는 유사하였으나 30대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40대와 50대에 있어서는 건성 피부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 있어서는 피부유형이 다소 유동적임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들의 피부유형 중 직업의 분류의 경우 학생(45.8%), 전문직(41.2%), 회사원(39.2%), 서비스직(33.3%)은 복합성을 전업주부(52.3%)와 자영업(37%)은 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로 나타났다. 정혜정(2013)의 연구결과 회사원(54.2%)과 전문직(42%)은 복합성이, 주부(11.5%)는 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박봉선(2012)의 여성들의 생활습관과 안면 피부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문사무직(40.4%)은 복합성, 전업주부(37.4%)는 건성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서비스자영업자(33.3%)는 지성으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김현주(2011)의 연구에서 자영업(63.8%)과 전업주부(47.8%)가 건성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학생(38.1%), 서비스·판매직(37.4%), 사무직(33.3%)에 있어서 건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전업주부에 있어서는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그 외 다른 직업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전업주부와 달리 그 외 직업들은 종사자의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함축되어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있어 좀 더 세밀하게 직업을 분류하여 조사함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들의 고민하는 피부 문제점의 경우 20대는 여드름(35.2%), 30대는 수분부족(29%), 40대는 색소침착(43.9%), 50대는 주름·노화(39.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명숙(2010)의 여성의 피부관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대(32.8%)는 여드름, 40대(41.5%)는 색소침착이 50대(52%)는 주름이 가장 높게 나타나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피부관리실 유통화장품의 구매행태 및 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김혜경(2013)의 연구도 20대(26%)는 여드름, 40대(48%)와 50대(36%)는 주름·탄력저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 밖에 피부관리실 형태에 따른 연령별 선호도를 살핀 윤미진(2012)이 연구결과 20대(52.3%)는 여드름, 40대(41.8%)는 색소침착이 가장 높게나 30대(25%)는 여드름, 50대(29.5%)는 색소침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외하고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 20대, 40대, 50대에 있어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30대에 있어서는 각각의 선행 연구들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0대가 40대의 신체변화의 전환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고, 직업과 결혼 등 다양한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개개인의 피부문제점이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업주부(45.1%), 서비스직(33.3%), 회사원(23%)은 주름·노화가, 자영업(34.8%)과 전문직(20.6%)은 색소침착, 학생(33.3%)은 여드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에 있어서 여드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김현주(2011), 성미숙(2013), 송민진(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전업주부에 있어 주름·탄력저하가 가장 높다고 밝힌 김혜경(2013)과 성미숙(201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그 외 직업에 있어서는 선행연구들 간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20대 중반 이하로 대상이 정해져 있고 전업주부 역시 일반적으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는 대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외 직업에 있어서는 연령 뿐 아니라 직업 분야에 있어서도 세분화 될 가능성이 높아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들의 선호하는 피부관리 장소는 20대의 경우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35.2%), 50대(50.8%), 40대(40.4%), 30대(39.3)는 홈케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세영 등(2012)의 연구에서 30~50대 모두 자가피부관리가 35.1%로 가장 높은 나타난 것과 유사하며, 김현주(2011)의 연구에서 20대(71%), 40대(50%), 30대(45%), 50대(45%) 모두 집에서 스스로 관리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박현정(2010)의 연구에서는 30대(75.4%), 40대이상(70.1%), 20대(63.2%) 모두 피부관리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경(2013)의 연구에서도

50대(93.5%), 40대(89.5%), 20대(87%), 30대(85.1%) 모두 피부관리실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현정(2010)의 연구와 김혜경(2013)의 연구가 본 연구대상과 달리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대의 경우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스스로 케어 하기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고, 이성교제 및 결혼, 취직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은 전문피부관리실(37.3%), 학생(54.2%), 전업주부(49.7%), 자영업(43.5%), 서비스직(33.3%)은 홈케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송민진(2013)의 직업군에 따른 피부관리 인식 및 관리실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직(46.3%)과 사무직(30%)은 피부관리실, 학생(53.8%), 서비스직(44.4%), 기술직(28.1%)으로 나타나 전문직, 학생, 서비스직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사무직에 있어서는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이 전문피부관리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은 학생과 서비스직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의 경우 20대(59%)와 30대(42.1%)는 피부고민 해결을, 50대(64.1%) 와 40대(47.8%)는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는 피부고민해결(44.3%)을 위해, 30대(46.2%)와 40대이상(59.1%)은 젊고 건강한 피부유지를 위해 피부관리를 하다고 본 박현정(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볼수 있다. 이는 20대와 30대는 이성교제 및 결혼, 취직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고민도 높다고 보여 지며, 40대 이상의 연령이 젊은 유지와 노화방지를 위해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는 40세 이후 신체변화의 전환기에 접어들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56.9%), 학생(50%), 회사원(46.6%)은 피부고민해결에서, 자영업(67.4%), 전업주부(55.3%),

서비스직(47.6%)은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연령이 자영업, 전업주부, 서비스직이 40대 이상 비율이 높고, 전문직, 학생, 회사원에 있어서는 40대 이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관리 정보출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53.4%)와 30대(34.6%)는 인터넷을, 50대(52.2%)와 40대(40.7%)는 대중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38%)는 인터넷, 30대(44%)와 40대(33%)는 친구나 지인, 50대이상(48%)은 대중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김현주(2011)의 연구와 20대(28%)는 인터넷, 30대(33.3%)는 백화점, 40대(40.7%)와 50대(63.9%)는 TV광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유민(201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활용하여 피부관리 정보를 입수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지인이나 TV광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피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직업별의 경우 학생(58.3%), 서비스직(40.5%), 회사원(35.3%)은 인터넷을, 전업주부(52.7%)와 자영업(39.1%)은 대중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은 인터넷(36.5%)을, 기술직(50%), 전문직(41.5%), 사무직(38.6%)은 대중매체를, 서비스직은 친구나 지인(33.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송민진(2013)의 연구와 학생(38.1%)은 인터넷, 전업주부(38.1%)는 대중매체, 서비스·판매직(45.8%), 자영업(34.8%), 사무직(33.3%)은 모두 친구나 지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김현주(201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능숙하고 접하기 쉬운 직업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 입수가 높고, 반면 인터넷을 쉽게 다루거나 접하기 힘든 직업 일수록 대중매체나 지인에게서 정보를 입수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들의 선호하는 안면미용성형 장소는 20대의 경우 성형외과(52.4%), 30대(57%), 40대(50.4%), 50대(50.4%)는 피부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20대는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외모에 관심이 어느 연령대 보다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30대 이후의 연령대와 달리 피부과를 통한 소극적인 시술에 그치지 않고 성형외과 시술을 통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모의 변화를 주고자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대상자들의 안면미용성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20대(33.3%), 30대(34.6%), 40대(51.3%), 50대(47.5%) 모두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에 있어 젊음유지·노화방지를 위해 안면미용성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에 신체 변화의 전화기가 시작되어 신체 호르몬의 하향세가 본격화 되며, 특히 피부의 진피층이 얇아지고, 진피층의 콜라겐 섬유소도 분해되어 피부 탄력을 잃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안면미용 사업에 있어 40대 이후 연령층을 겨냥한 노화방지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 됨을 시사해 준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50%), 전문직(37.3%), 자영업(37%), 서비스직(31%)은 젊음유지·노화방지가, 학생은 외모컴플렉스 해소(41.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안면미용 성형을 선호하게 되며, 연령이 높은 직업인 일수록 젊음유지 및 노화방지 이유로 안면미용성형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사대상자들의 안면미용성형 시술 종류는 레이저(31.4%), 보톡스(21.8%), 필러(13.4%), 박피(6.1%), 흉터제거(3.9%), 지방이식(2.5%), 콜라겐주사(1.4%), 안면거상술(0.7%)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33.3%)와 30대(33.3%)는 보톡스를, 40대(31.6%)와 50대(36.2%)는 레이저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앞서 제시된 40대와 50대가 노화방지를 위해 안면미용성형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20대와 30대가 보톡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어느 연령대 보다 높은 시기로 적극적인 외모의 변화를 주고자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피부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모개선에 도움이 된 경우($p<.01$)와, 피부관리의 효과에 대해 신뢰성이 있는 경우($p<.001$), 그리고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경우($p<.01$)가 피부관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라(2012)의 피부미용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에서 시술만족과 신뢰성이 서비스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김남연(2010)의 고객의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실의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추천의도, 풍부한 지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볼수 있다. 최근 피부관리 시설 향상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임을 밝힌 다수의 연구들(박경란, 2013; 최재민, 2012)이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외적 서비스 측면에서 갈수록 중시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외모개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전략임을 본 연구결과가 보여 준다.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p<.001$)와 피부상태가 좋아졌다($p<.01$), 그리고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p<.001$)가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남(2013)의 미용성형인식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시술 후 전체적인 외모만족이 안면미용성형 만족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수술 후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과 수술 후에 좋아짐이 인식이 성형 시술 후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김영주(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안면미용성형 시술자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저렴한 시술 비용(장항미, 2013)보다는 효과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다.

VI.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20~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 4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29세(23.6%), 30-39세(24.1%), 40-49세(25.7%), 50세 이상(26.6%)이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여부의 경우 기혼(63.2%)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전업주부(34.7%), 월소득은 200만원 이하(49.3%), 피부미용 지출비용은 10만원 이하(47.4%)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습관은 음주빈도의 경우 마시지 않는다(38.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흡연의 경우 하지 않는다(93.3%)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빈도의 경우 주2-3회(26.2%), 하지 않는다(24.8%), 주1회(20.7%)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6.40 ± 1.28 시간, 하루식사 횟수는 2.66 ± 0.62 회, 하루 물 음용량(200ml 한잔기준)은 5.00 ± 2.44 잔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자들의 피부유형은 29세 이하의 경우 복합성(49.5%)이, 30-39세(38.3%), 40-49세(50.9%), 50세 이상(49.2%)은 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직업별 분류의 경우 학생(45.8%), 회사원(39.2%), 전문직(41.2%), 서비스직(33.3%) 모두 복합성으로 나타났으며, 자영업(37%)과 전업주부(52.3%)는 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연령에 따른 피부상태는 29세 이하(40.4%), 30-39세(48.6%),

40~49세(59.6%), 50세 이상(56.8%) 모두 보통이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1$). 고민하는 피부 문제점의 경우 29세 이하는 여드름(35.2%), 30~39세는 수분부족(29%), 40~49세는 색소침착(43.9%), 50세 이상은 주름·노화(39.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01$), 혼인 여부에 있어서 미혼은 여드름(27%)이, 기혼은 주름·노화(39.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한편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여드름(33.3%), 회사원은 주름·노화(23%), 전문직은 색소침착(20.6%), 서비스직은 주름·노화(33.3%), 자영업은 색소침착(34.8%), 전업주부는 주름·노화(45.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피부상태의 주된 영향요인에서 29세 이하는 식습관(35.2%), 30~39세는 스트레스(41.1%), 40~49세는 자외선 노출(24.6%), 50세 이상은 평소 피부관리 부족(38.1%)으로 나타났으며($p<.001$), 혼인 여부에 있어서 미혼은 식습관(33.8%), 기혼은 평소 피부관리 부족(2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피부문제점 개선 노력의 경우 29세 이하는 그렇다(62.9%), 30~39세는 그렇다(55.1%), 40~49세는 그렇다(64.9%), 50세 이상은 그렇다(53.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4. 조사대상자들의 선호하는 피부관리 장소는 29세 이하의 경우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35.2%)이, 30~39세(39.3%), 40~49세(40.4%), 50세 이상(50.8%)은 홈케어를 가장 선호하고($p<.001$), 직업의 경우 전문직은 전문피부관리실(37.3%)을, 학생(54.2%), 서비스직(33.3%), 자영업(43.5%), 전업주부(49.7%)는 홈케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한편 소득에 있어서 301만원 이상은 전문피부관리실(46.9%)을, 200만원 이하(46.1%)와 201~300만원은 홈케어(40.2%)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의 경우 29세 이하(59%)와 30~39세(42.1%)는 피부고민 해결을, 40~49세(47.8%)와 50세 이상(64.1%)은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1$), 직업별 분류의 경우 학생(50%), 회사원(46.6%), 전문직(56.9%)은 피부고민해결에서, 서비스직(47.6%), 자

영업(67.4%), 전업주부(55.3%)는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피부관리 유형은 29세 이하는 트러블관리(41.9%), 30~39세는 보습관리(29%), 40~49세는 미백관리(41.2%), 50세 이상은 노화관리(52.5%)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p<.001$), 직업의 경우 학생(41.7%)은 트러블관리, 회사원(25.7%),은 트러블관리 전문직(24.5%)은 트러블관리, 자영업(34.8%)과 전업주부(46.4%)는 노화관리, 서비스직은 보습관리(3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피부관리 정보 출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9세 이하(53.4%)와 30~39세(34.6%)는 인터넷을, 40~49세(40.7%)와 50세 이상(52.2%)은 대중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직업별로 학생(58.3%), 회사원(35.3%), 서비스직(40.5%)은 인터넷을, 자영업(39.1%)과 전업주부(52.7%)는 대중매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피부관리 결정시 장애요인은 29세 이하(47.6%), 40~49세(50%), 50세 이상(59.3%)은 비용부담을, 30~39세는 시간부족(4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1$), 직업별로 학생(62.5%), 회사원(44.6%), 서비스직(35.7%), 전업주부의 경우 비용부담(58.2%)을, 전문직(33.3%)과 자영업(45.7%)의 경우 시간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5. 조사대상자들의 선호하는 안면미용성형 장소는 29세 이하의 경우 성형외과(52.4%), 30~39세(57%), 40~49세(50.4%), 50세 이상(50.4%)은 피부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1$). 안면미용성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29세(33.3%), 30~39세(34.6%), 40~49세(51.3%), 50세 이상(47.5%) 모두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학생은 외모콤플렉스 해소(41.7%), 회사원은 피부 고민해결(40.5%), 전문직(37.3%), 서비스직(31%), 자영업(37%), 전업주부(50%)는 젊음유지·노화방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안면미용성형 시술 종류는 29세 이하(33.3%)와 30~39세(33.3%)는 보톡스를, 40~49세(31.6%)와 50세 이상(36.2%)은 레이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안면미용성형의 정보출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는 인터넷(40.4%), 30~39세(29%), 40~49세(42.5%), 50세 이상(42.6%)은 지인소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직업별은 학생(30.4%)과 회사원(32.9%)은 인터넷, 전문직(42.2%), 서비스직(50%), 전업주부(40.3%)는 지인 소개, 자영업은 대중매체(32.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안면미용성형 결정시 장애요인은 연령에 있어 29세 이하(58.1%), 30~39세(49.1%), 40~49세(40.4%)는 부작용걱정을, 50세 이상은 비용(44.4%)을($p < .05$), 혼인 여부의 경우 미혼(53.4%), 기혼(42.6%) 기타(57.1%) 모두 부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5$)

6. 피부관리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피부관리 후 외모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beta = .128, p < .01$), 피부관리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beta = .539, p < .001$)로 나타났다.

7. 안면미용성형 만족요인이 피부관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안면미용성형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beta = .219, p < .001$),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beta = .124, p < .01$), 안면미용성형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 이다($\beta = .258, p < .001$),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beta = .378, p < .001$)로 나타났다.

8. 안면미용성형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r = 0.213$),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r = 0.200$), 안면미용성형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 이다($r = 0.273$),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r = 0.168$)는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면미용성형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r = 0.120$)와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r = 0.006$)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대상자들은 연령에 따라 피부유형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피지 분비량에 의한 트러블 피부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노화의 진행으로 표피층의 수분 감소로 인해 주름 및 노화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사대상자들은 피부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었으며,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피부관리 뿐 아니라 주름 및 노화와 관련된 의료적인 시술인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의 안면미용성형을 과반수 이상이 하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여성들의 미적욕구와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 안면미용성형이 미용산업의 한 트렌드로 작용하여 과거 단순한 피부관리에만 의존하였던 소비자 행동이 현재 미용성형에 까지 그 영역대를 넓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의료적인 영역으로 국한 되어 있던 성형이 미용산업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경우 뷰티산업의 한 분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이 서울특별시와 경기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구비례에 의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를 피부관리 및 안면미용성형 시장 전체의 해석으로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때문에 앞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광범위 하게 설문대상의 선정이 요구 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직업별 분류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함축적으로 제시하여 직업별 유의한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 있어 보다 세밀한 직업 분류가 필요시 된다.

셋째, 미용성형과 의료성형의 경계에 있어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는데 다소 한계가 있다.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성형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미용산업에 까지 그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음을 명확히 시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및 개발을 통해 향후 미용산업의 성장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가오인, 모정희, 정주임(2012). 중국 일부 여대생의 피부관리 지식 및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3(3), 101-113.
2. 강근영(2011). 여성의 메이크업과 얼굴의 부분별 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4.
3. 강지영(2013). 젊은 여성의 식습관이 피부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31.
4. 강춘구(2013). 피부미용 범주안의 서비스 유형별 정의에 관한 고찰 : 객체지향적 방법을 활용한 개념 정의.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21
5. 고정임(2012). 도시 규모별 메디컬 에스테틱 고객의 만족도 비교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16.
6. 김광희(2013). 메디컬스킨케어가 중년여성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17.
7. 김금란(2010). 피부관리가 40세 전후 여성의 안면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11.
8. 김남연(2010). 피부미용실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도구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10.
9. 김남연(2010). 고객의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실 고객만족도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4), 1-13.
10. 김대옥(2012). 동양의 수기 마사지 비교연구 : 아유르베다와 경락 마사지의 비교연구. 과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1.
11. 김명숙, 강경호, 김민정(2011). 여성의 피부관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6(1), 51-69.

12. 김봉인외 7인(2012). 「메디컬 에스테틱」, 메디시언 출판사. 22-25.
13. 김수현(2013).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7.
14. 김여애(2011). 운동요법과 복부 수기 마사지 요법이 체중 및 체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10.
15. 김은경(2011). 실버세대 여성의 피부미용 및 미용성형에 관한 인식 및 형태.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
16. 김은수(2013). 여고생의 피부상태 관심도 및 만족도에 따른 피부건강교육의 필요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34
17. 김태현, 이문숙(2002).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8-30
18. 김현정(2010). 남성들의 메디컬스킨케어와 미용성형의 인식 및 실태조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18.
19. 김현주(2011). 여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 실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60.
20. 김형태(2010). 「이비인후과 이야기」, 신원문화사. 111-113.
21. 김혜경(2013). 피부관리실 유통화장품의 구매행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48.
22. 김화숙(2011). 성인남녀의 외모와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인식 및 관심도.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0.
23. 나현숙 외 6인(2010). 「메디컬스킨케어」, 수문사. 59-63
24. 노상은(2011). 일반피부관리와 메디컬피부관리에 대한 만족도 및 재이용의도.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27.

25. 명은설(2011). 가정용 안면피부미용기기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9.
26. 박봉선(2012). 여성들의 생활습관과 안면 피부상태와의 관련성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3-39.
27. 박소영(2011). 미용체형 성형수술 지원자들의 행동특성 및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
28. 박한나, 안홍석(2011). 고주파 관리와 스킨테라피가 중년여성의 안면피부 상태에 미치는 효과 비교.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2), 17-26.
29. 박현정(2010). 피부관리실의 이용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47
30. 변선주(2011). 미용성형과 피부미용의 효용성 및 인식도 비교분석을 통한 피부미용의 발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5.
31. 서구일(2010). 「보톡스 시크릿」, 웅진씽크빅.
32. 성미숙(2013). 팩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40.
33. 송민진(2013). 직업군에 따른 피부관리 인식 및 관리실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35.
34. 심현실(213). 뷰티테라피 선택 유형에 따른 피부 건강관리 행태와 만족도.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
35. 안미숙(2011). 안면피부상태의 자가인식에 따른 피부건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7.
36. 엄미선(2013). 여대생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 미용성형시술 실태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8.
37. 오수정, 강수경(2010). 남·녀 대학생의 피부유형과 피부관리 태도 비교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3), 201-210.
38. 유해숙(2013).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30.
39. 윤미진(2012). 피부관리실 형태에 따른 연령별 선호도 연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9.
40. 이명진(2013). 수기요법과 고주파요법이 얼굴크기 및 피부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8.
41. 이명진, 권혜진(2012). 수기요법과 기기요법의 안면피부 상태변화. 「한국미용예술학회지」, 6(4), 123-131.
42. 이민영 강경호(2009). 여대생의 미의식에 따른 미용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 피부 관리, 체중조절, 미용성형 행동 중심으로.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4(2), 111-128.
43. 이소영(2010). 메디컬 스킨케어의 이용실태 및 병원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9.
44. 이유민(2011). 스킨케어 유형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피부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46.
45. 이윤경(2005).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8-11.
46. 이은주(2011). 외부 연부조직 확장을 이용한 비수술적 유방 확대 .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1.
47. 이주영(2012).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48. 인은희(2003). 미용성형수술환자의 병원선택요인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40.
49. 전양진(2013). 「화장하는 남자가 시장을 바꾼다」, 삼성경제연구소.
50. 장향미, 조선영(2013). 미용성형 의료기관 선택속성에 따른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27(6), 117-136.
51. 전현진, 정명선(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3), 590-601.
52. 정보연(2010). 피부미용 경영자의 운영 및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2.
53. 정보연, 김은화(2010). 피부미용실에서의 피부미용기기 사용 실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1), 155-164.
54. 정혜정(2013). 피부유형별 세안 방법 및 클렌저 사용법과 부작용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26-28.
55. 조경원(2010). 미용성형 환자의 병원선택 요인과 만족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4(2), 97-106.
56. 조운정(2007). 미용서비스 가치가 고객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6-78.
57. 진훈(2011). 「성형의 정석」, 웅진씽크빅. 138-139.
58. 최미혜(2010).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9.
59. 최선미(2011). 성인여성의 비만관리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23.
60. 최세영, 박효진, 이미정, 양지연, 박은정, 라원희, 강유미, 조원정, 김영희, 김금란(2012). 30-50대 남녀 피부관리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연구. 「한

- 국미용예술학회지」, 6(1), 245-255.
61. 최숙경, 이정숙, 송제호 (2011). 수기요법 시술이 비만여성의 신체조성과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및 내장지방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3), 1-16
 62. 최재민(2012). 일반피부관리와 메디컬피부관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15.
 63. 통계청(2013).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
 64. 홍수남(2013). 미용성형인식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태도. 「기초조형학연구」, 14(3), 349-355.
 65. 허은숙(2012).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특성.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66. 황보라(2013). 피부미용실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3-35.
 67. 한국경제신문(2010). 헤어·피부 등 뷰티산업 3년 후 7조시장, 정종호, 2010.9.30자 보도

Abstract

Study on the Behavior and Satisfaction Level of Skin Care and Facial Cosmetic Surgery

Um, Soo jung

Major in Skin care and Obesity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Welfare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ective service enforcement strategy to satisfy customers' various desires, through the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skin care and facial cosmetic surgery. The study target involved 475 female women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area, and they were given a survey; the result was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program, and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As for the study target, 23.6% was below the age of 29, 24.1% was 30-39 years old, 25.7% was 40-49 years old, 26.6% was over 50; 65.3% had jobs, 34.7% was housewives, and 5.4% was student. In terms of skin care expenses, 75.8% spent under 200,000won, and 24.2% spent over 210,000won; in terms of lifestyle, 38.2% was alcohol-free, 93.3% were non-smokers, and 75.2% exercised and had relatively regular sleep and eating patterns

The result of the skin type analysis showed dry (38.5%), combination (30.0%), neutral (14.2%), oily (9.7%), and sensitive (7.7%), and skins problems were wrinkles and aging (29.3%), pigmentation (25.2%), water deficit (16.9%), acne (10.6%), wide pores (9.9%), hemotelangiosis (4.7%), and excessive sebum secretion (3.4%); the primary effects of skin condition were stress (27.3%), lack of regular skin care (26.3%), eating habit

(18.5%), exposure to UV light (13.3%), hereditary (9.0%), and lack of sleep (8.3%).

The study target mainly used professional skin care facilities (32.7%) and skin care department within hospitals/doctor's offices (21.2%), and the main reasons for skin care were keeping youthfulness/preventing aging (45.9%) and resolving skin troubles (39.6%).

The target mainly sought dermatologists (56.1%) and plastic surgeons (40.5%) for facial cosmetic surgeries, and the biggest reason for going through cosmetic surgery keeping youthfulness/preventing aging (38.4%). Also, the types of procedures they got were laser (31.4%), botox (21.8%), filler (13.4%), exfoliation (6.1%), scar removal (3.9%), fat transplant (2.5%), collagen shots (1.4%), and face lifting (0.7%), and obstacles in deciding facial cosmetic surgery are concerns about side effects (46.6%) and high cost (35.7%).

In terms of satisfaction level of skin care and facial cosmetic surgery, the result on skin care shows that the procedures helped improving the appearance ($p < .01$). Meanwhile, regarding facial cosmetic surgery, the skin condition improved ($p < .01$), had positive feedback from the people around ($p < .001$), and had credibility on the effect of facial cosmetic surgery ($p < .001$).

The overall result of skin care and facial cosmetic surgery were satisfactory and that they had enough knowledge about facial cosmetic surgery; the level of credibil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nd there was a credibility on the effect of facial cosmetic surgery.

Therefore, this study wanted to suggest a direction in revitalizing the future development of cosmetic through seeking correct information and improvements and introducing and developing new programs, by uti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satisfaction level of skin care and facial cosmetic surgery.

- 부 록 -

II. 다음은 귀하의 생활습관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해 주세요.

1. 귀하의 1일 평균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일()시간 정도
2.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① 전혀 마시지 않는다 ② 매일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주 3~4회
 ⑥ 주 4~5회 ⑦ 주 5~6회 ⑧ 월 1~2회
- 2-1. 귀하의 음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음주하는 분만 응답) (소주 한잔 40ml기준)
 ① 소주 1~2잔 ② 소주 반병 정도 ③ 소주 한 병 이상 ④ 소주 두병 이상
3. 귀하의 흡연량은 1일기준으로 어느정도입니까?
 ① 흡연하지 않는다 ② 1일 ()회 정도
- 3-1. 귀하는 흡연을 하신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흡연자만 응답)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7년 미만
 ⑤ 7~10년 미만 ⑥ 10년 이상
4. 귀하는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십니까? 1일 ()회
5. 귀하는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200ml 한잔기준) 1일 ()잔 가량
6. 귀하는 평소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하지 않는다 ② 매일 ③ 주 1회 ④ 주 2~3회 ⑤ 주 3~4회
 ⑥ 주 4~5회 ⑦ 주 5~6회 ⑧ 월 1~2회

III. 다음은 귀하의 피부상태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해 주세요.

1. 귀하의 피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① 건성 ② 중성 ③ 지성 ④ 복합성 ⑤ 민감성
2. 귀하의 피부상태는 주관적 판단으로 볼 때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약간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3. 귀하가 현재 가장 많이 고민하는 피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여드름 ② 색소침착(기미, 주근깨, 잡티) ③ 주름, 노화 ④ 피지분비과다
 ⑤ 수분부족(피부건조) ⑥ 예민, 모세혈관확장 ⑦ 넓은 모공
4. 귀하는 피부의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① 매우 받는다 ②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받지 않는다 ⑤ 전혀 받지 않는다

5. 귀하는 본인의 현 피부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식습관(자극성 음식, 인스턴트) ② 자외선 노출 ③ 유전 ④ 수면부족
 ⑤ 스트레스 ⑥ 평소 피부관리 부족
6. 귀하는 고민하는 피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V. 다음은 귀하의 피부관리 실태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해 주세요.

1. 귀하가 선호하는 피부 관리 장소는 어디입니까?
 ① 전문피부관리실
 ② 병의원 내 피부관리실
 ③ 화장품 매장 내 피부관리실
 ④ 홈케어(집에서 본인이 관리)
2. 귀하가 피부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 한 가지만 선택)
 ①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②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건조, 잡티, 모공, 노화, 트러블, 예민 등)
 ③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컴플렉스 해소)
 ④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⑤ 주위의 권유로 인해
 ⑥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3. 귀하가 피부관리 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피부관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보습관리 ② 미백관리 ③ 모공관리 ④ 노화관리 ⑤ 트러블관리 ⑥ 홍조, 예민 관리
4. 귀하는 피부관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
 ① 대중매체 ② 신문이나 잡지 ③ 인터넷 ④ 지인 소개 ⑤ 전단지
5. 귀하가 피부관리를 할 장소를 선택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인지도 ② 전문성 ③ 이용 가격 ④ 시설과 환경 ⑤ 직원의 친절함
 ⑥ 다양한 프로그램 ⑦ 직원에 대한 신뢰도 ⑧ 짧은 대기시간 ⑨ 교통의 편리성
6. 귀하가 피부관리를 결정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가장 큰 것 한 가지만 선택)
 ① 비용 (경제적인 어려움)
 ② 부작용에 대한 걱정
 ③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
 ④ 관리를 받은 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
 ⑤ 관리 후에도 피부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걱정
 ⑥ 받고자 하는 곳의 적은 인지도

V. 다음은 귀하의 안전미용성형 실태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해 주세요.

1. 귀하가 선호하는 안전미용성형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성형외과
- ② 피부과
- ③ 종합병원
- ④ 준종합병원
- ⑤ 산부인과

2. 귀하가 안전미용성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 한 가지만 선택)

- ①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 ② 피부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화, 건조, 잡티, 모공, 트러블, 예민 등)
- ③ 의료적 방법으로 인한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위해
- ④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해서 (콤플렉스 해소)
- ⑤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 ⑥ 주위의 권유로 인해
- ⑦ 선호하지 않음

3. 귀하가 하신 안전미용성형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중복체크가능)

- ① 보톡스, ② 필러 ③ 레이저 ④ 박피 ⑤ 지방이식
- ⑥ 안면거상술 ⑦ 콜라겐주사 ⑧ 흉터제거 ⑨ 하지 않음

4. 귀하는 안전미용성형에 장소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습니까?

- ① 대중매체 ② 신문이나 잡지 ③ 인터넷 ④ 지인 소개 ⑤ 전단지
- ⑥ 피부관리실

5. 귀하가 안전미용성형을 할 장소를 선택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인지도 ② 전문성 ③ 이용 가격 ④ 시설과 환경 ⑤ 직원의 친절함
- ⑥ 다양한 프로그램 ⑦ 의사에 대한 신뢰도 ⑧ 짧은 대기시간 ⑨ 교통의 편리성

6. 귀하의 안전미용성형 결정 시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
- ② 부작용에 대한 걱정
- ③ 수술시 통증에 대한 두려움
- ④ 수술 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
- ⑤ 외모의 심한 변화 (수술 전 보다 좋지 못한 결과)

VI. 다음은 귀하의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해 주세요.

◆ 피부관리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질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피부관리에 대한 지식 (종류, 방법, 효과 등) 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피부관리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피부관리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피부관리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피부관리를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피부관리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안면미용성형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면미용성형을 하신분만 작성)

질문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안면미용성형에 대한 지식 (종류, 방법, 효과 등) 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안면미용성형 후 외모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안면미용성형 후 피부상태가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안면미용성형 후 주의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안면미용성형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피부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안면미용성형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